

아침 7 시 35 분, 이시가미는 평소처럼 연립 주택을 나서ㄴ다。

아침 7 時 35 分, 이時加味는 平素처럼 聯立 住宅을 나섰다。

아침 7 시 35 분, 이시가미는 평소처럼 연립 주택을 나섰다。

朝 7 時 35 分、石神はいつものように連立住宅を出た。

3 월로 접어들어ㄴ지만 아직도 바람이 꽤 차갑다。

3 月로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바람이 꽤 차갑다。

3 월로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바람이 꽤 차갑다。

3 月に入ったがまだまだ風がかなり涼しい。

머플러에 턱을 파묻고 걸어ㄴ다。

머플러에 턱을 파묻고 걸었다。

머플러에 턱을 파묻고 걸었다。

マフラーにあごを埋めて歩いた。

큰길로 나서기 전에 자전거 거치대 쪽으로 힐끔 눈길을 주ㄴ다。

큰길로 나서기 前에 自転車 거치대 쪽으로 힐끔 눈길을 준다。

큰길로 나서기 전에 자전거 거치대 쪽으로 힐끔 눈길을 준다。

大きな道に出る前に自転車据え置きの方へヒルヒム目を与える。

자전거가 몇 대 있어ㄴ지만 그 가운데 그가 찾는 녹색 자전거는 보이지 않는다。

自転車가 몇 代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가 찾는 綠色 自転車는 보이지 않는다。

자전거가 몇 대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가 찾는 녹색 자전거는 보이지 않는다。

自転車がいくつかあったが、その中で彼が探している緑の自転車は見えない。

남쪽으로 20 미터 정도 걷자 넓은 도로가 나와ㄴ다。

南쪽으로 20 미터 程度 걷자 넓은 道路가 나왔다。

남쪽으로 20 미터 정도 걷자 넓은 도로가 나왔다。

南に 20 メートルほど歩くと広い道路が出た。

신오하시 거리다。

新吳何時 거리다。

신오하시 거리다。

新大橋通りだ。

이곳에서 왼쪽, 즉 동쪽으로 가면 에도가와구이고 서쪽으로 향하면 니혼바시가 나오ㄴ다。

이곳에서 왼쪽, 卽 東쪽으로 가면 에도가와구이고 西쪽으로 向하면 니혼바時가 나온다。

이곳에서 왼쪽, 즉 동쪽으로 가면 에도가와구이고 서쪽으로 향하면 니혼바시가 나온다。

ここから左、つまり東に行くと江戸川区で西に向かうと日本橋が出る。

니혼바시 바로 앞에는 스미다강이 흐르고 그 강을 건너는 다리가 신오하시교다。

니혼바時 바로 앞에는 스미다江이 흐르고 그 江을 건너는 다리가 新吳何時教다。

니혼바시 바로 앞에는 스미다강이 흐르고 그 강을 건너는 다리가 신오하시교다。

日本橋のすぐ前には隅田川が流れ、その川を渡る橋が新大橋橋だ。

이시가미가 직장으로 가려면 이대로 곧장 남하하는 것이 최단 거리다。

이時加味가 職場으로 가려면 이대로 곧장 南下하는 것이 最短 거리다。

이시가미가 직장으로 가려면 이대로 곧장 남하하는 것이 최단 거리다。

石神が職場に行くには、このまままっすぐ南下するのが最短距離だ。

몇백 미터만 걸어가면 ‘기요스미 정원’이라는 공원에 닿게 되ㄴ다。

몇百 미터만 걸어가면 ‘기요스미 庭園’이라는 公園에 닿게 된다。

몇백 미터만 걸어가면 ‘기요스미 정원’이라는 公園에 닿게 된다。

數百メートルだけ歩いていくと「清住庭園」という公園に届くことになる。

그 바로 앞에 있는 사립학교가 그의 직장이다。

그 바로 앞에 있는 私立學校가 그의 職場이다。

그 바로 앞에 있는 사립학교가 그의 직장이다。

その直前にある私立学校が彼の職場だ。

그는 거기서 수학을 가르친다。

그는 거기서 數學을 가르친다。

그는 거기서 수학을 가르친다。

彼はそこで数学を教える。

눈앞의 신호등이 빨강으로 바뀌는 것을 보며 이시가미는 오른쪽으로 굽어들어 신오하시교를 향해 걸어 ㄴ다。

눈앞의 信號燈이 빨강으로 바뀌는 것을 보며 이時加味는 오른쪽으로 굽어들어 新吳何時教를 향해 걸었다。

눈앞의 신호등이 빨강으로 바뀌는 것을 보며 이시가미는 오른쪽으로 굽어들어 신오하시교를 향해 걸었다。

目の前の信号灯が赤に変わるのを見て石神は右に曲がって新大橋橋に向かって歩いた。

맞바람에 코트가 펄럭여 ㄴ다。

맞바람에 코트가 펄럭였다。

맞바람에 코트가 펄럭였다。

向かいにコートがしぶきだった。

그는 양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고 몸을 웅크리 ㄴ 채 발걸음을 옮겨 ㄴ다。

그는 兩손을 胡주머니에 찔러 넣고 몸을 웅크린 채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양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고 몸을 웅크린 채 발걸음을 옮겼다。

彼は両手をオーストラリアのポケットに差し込み、体を丸めたまま足を運んだ。

두꺼운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다。

두꺼운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다。

두꺼운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다。

厚い雲が空を覆っている。

그 하늘빛이 비쳐 스미다 강도 칙칙하게 가라앉아 ㄴ다。

그 하늘빛이 비쳐 스미다 強盜 칙칙하게 가라앉았다。

그 하늘빛이 비쳐 스미다 강도 칙칙하게 가라앉았다。

その空の光が映り、隅田の強さがくすんで沈んだ。

작은 배 한 척이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 ㄴ다。

작은 배 한 척이 上流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작은 배 한 척이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小さな船一隻が上流にさかのぼっていた。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시가미는 신오하시교를 건너 ㄴ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時加味는 新吳何時教를 건넜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시가미는 신오하시교를 건넜다。

その姿を眺めながら石神は新大橋橋を渡った。

다리를 건너 ㄴ 그는 다리 끝자락에 나 있는 계단으로 내려가 ㄴ다。

다리를 건넌 그는 다리 끝자락에 나 있는階段으로 내려갔다。

다리를 건넌 그는 다리 끝자락에 나 있는 계단으로 내려갔다。

橋を渡った彼は橋の端にある階段に降りた。

그리고 다리 밑을 가로질러 스미다강을 따라 걷기 시작해<sup>ㄴ</sup>다。

그리고 다리 밑을 가로질러 스미다江을 따라 걷기 始作했다。

그리고 다리 밑을 가로질러 스미다강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そして橋の下を横切って隅田川沿いを歩き始めた。

강 양쪽 기슭에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姜兩쪽 기슭에는 散策路가 助成돼 있다。

강 양쪽 기슭에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川の両麓には遊歩道が造成されている。

하지만 가족끼리, 또는 커플이 산책을 즐기는 곳은 저 앞 기요스바시 근처에서부터이고 이 신오하시

교 근처는 휴일에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sup>ㄴ</sup>다。

하지만 家族끼리, 또는 커플이 散策을 즐기는 곳은 低 앞 기요스바時 近處에서부터이고 이 新吳何時 教 近處는 休日에도 찾는 사람이 別로 없었다。

하지만 가족끼리, 또는 커플이 산책을 즐기는 곳은 저 앞 기요스바시 근처에서부터이고 이 신오하시교 근처는 휴일에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だが、家族同士、またはカップルが散歩を楽しむ所は、あの前の清水橋の近くからであり、この新大橋橋の近くは休日にも訪れる人があまりなかった。

그 이유는 이곳에 와 보면 금방 아<sup>ㄴ</sup> 수 있다。

그 理由는 이곳에 와 보면 今方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이곳에 와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その理由はここに来てみるとすぐ分かる。

파라<sup>ㄴ</sup> 비닐 시트로 뒤덮인 노숙자 주거가 죽 늘어서 있는 것이다。

파란 비닐 시트로 뒤덮인 露宿者 住居가 죽 늘어서 있는 것이다。

파란 비닐 시트로 뒤덮인 노숙자 주거가 죽 늘어서 있는 것이다。

青いビニールシートで覆われたホームレス住宅がお粥並んでいるのだ。

그 바로 위를 고속도로가 지나가므로 비바람을 피하기에 더없이 좋<sup>ㄴ</sup> 장소이기 때문이<sup>ㄴ</sup>지도 모르<sup>ㄴ</sup>다。

그 바로 위를 高速道路가 지나가므로 비바람을 避하기에 더없이 좋은 場所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바로 위를 고속도로가 지나가므로 비바람을 피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そのすぐ上を高速道路が通り過ぎるので雨風を避けるのにもなく、良い場所だからかもしれない。

그 증거로, 강 반대편에는 파라<sup>ㄴ</sup> 비닐 오두막이 하나도 없어<sup>ㄴ</sup>다。

그 證據로, 姜 反對便에는 파란 비닐 오두幕이 하나도 없었다。

그 증거로, 강 반대편에는 파란 비닐 오두막이 하나도 없었다。

その証拠として、川の反対側には青いビニール小屋が一つもなかった。

물론 그들 나름대로 집단을 형성하는 편이 살아가기에 더 좋다는 사정도 있<sup>ㄴ</sup> 것이다。

勿論 그들 나름대로 集團을 形成하는 便이 살아가기에 더 좋다는 事情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집단을 형성하는 편이 살아가기에 더 좋다는 사정도 있을 것이다。

もちろん、それなりに集團を形成するほうが生きていく方が良いという事情もあるだろう。

이시가미는 그 파라<sup>ㄴ</sup> 비닐 오두막들 앞을 덤덤히 걸어가<sup>ㄴ</sup>다。

이時加味는 그 파란 비닐 오두幕들 앞을 덤덤히 걸어갔다。

이시가미는 그 파란 비닐 오두막들 앞을 덤덤히 걸어갔다。

石神はその青いビニールの小屋の前をおかしく歩いた。

비닐 오두막은 커 봐야 겨우 사람 키만 한 높이고 개중에는 허리 높이밖에 안 되는 것도 있어<sup>ㄴ</sup>다。

비닐 오두幕은 커 봐야 겨우 사람 키만 恨 높이고 個中에는 허리 높이밖에 안 되는 것도 있었다。  
비닐 오두막은 커 봐야 겨우 사람 키만 한 높이고 개중에는 허리 높이밖에 안 되는 것도 있었다。  
ビニールキャビンは大きく見てこそやっと身長だけ高め、開中には腰高さしかないのもあった。

오두막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상자라고 부르는 편이 더 어울리ㄴ 것이다。

오두幕이라기보다는 차라리 箱子라고 부르는 便이 더 어울릴 것이다。

오두막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상자라고 부르는 편이 더 어울릴 것이다。

小屋というよりはむしろ箱と呼ぶほうがより似合うだろう。

그렇지만 잠만 자는 공간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ㄴ지도 모르ㄴ다。

그렇지만 잠만 자는 空間이라면 그것으로 充分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잠만 자는 공간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할지도 모른다。

でも寝る寝る空間ならそれで十分かもしれない。

오두막, 또는 상자 옆에는 약속이라도 하ㄴ 듯 빨랫줄이 매여 있어 그곳이 생활공간이ㄴ을 말해 주어  
ㄴ다。

오두幕, 또는 箱子 옆에는 約束이라도 한 듯 빨랫줄이 매여 있어 그곳이 生活空間임을 말해 주었다。

오두막, 또는 상자 옆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빨랫줄이 매여 있어 그곳이 생활공간임을 말해  
주었다。

小屋、または箱の横には約束でもしたように洗濯物が結ばれていて、そこが生活空間であることを語ってくれた。

제방 끝 난간에 기대어 이를 닦는 남자가 있어ㄴ다。

제房 끝 欄干에 기대어 이를 닦는 男子가 있었다。

제방 끝 난간에 기대어 이를 닦는 남자가 있었다。

堤防の端の手すりにもたれて歯を磨く男がいた。

이시가미가 자주 보는 남자다。

이時加味가 자주 보는 男子다。

이시가미가 자주 보는 남자다。

石神がよく見る男だ。

60을 훌쩍 넘기ㄴ 나이에 백발 섞이ㄴ 머리를 뒤로 묶어ㄴ다。

60을 훌쩍 넘긴 나이에 白髮 섞인 머리를 뒤로 묶었다。

60을 훌쩍 넘긴 나이에 백발 섞인 머리를 뒤로 묶었다。

60をぶら下げた年齢で白髪混じった頭を後ろに結んだ。

아마 일하ㄴ 마음이 없으ㄴ 것이다。

아마 일할 마음이 없을 것이다。

아마 일할 마음이 없을 것이다。

おそらく働く心がないでしょう。

육체노동이라도 하ㄴ 생각이라면 이 시간에 이렇게 어슬렁거리지 않는다。

肉體勞動이라도 할 생각이라면 이 時間에 이렇게 어슬렁거리지 않는다。

육체노동이라도 할 생각이라면 이 시간에 이렇게 어슬렁거리지 않는다。

肉体労働でもやるつもりならこの時間にこんなにぶら下がらない。

그런 일의 알선은 새벽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일의 斡旋은 새벽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일의 알선은 새벽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そんなことの斡旋は夜明けに行われるからだ。

또한 공공 직업 안정소에 가ㄴ 계획도 없으ㄴ 것이다。

또한 公共 職業 安定소에 갈 計劃도 없을 것이다。

또한 공공 직업 안정소에 갈 계획도 없을 것이다。

また、公共職業安定所に行く計画もないだろう。

가서 일자리를 소개 받는다 하<sub>ㄴ</sub>들 저런 봉두난발로 면접 자리에 나가<sub>ㄹ</sub>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서 일자리를 紹介 받는다 한들 저런 峯頭亂發로 面接 자리에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서 일자리를 소개 받는다 한들 저런 봉두난발로 면접 자리에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行って仕事を紹介してもらい限り、あんな封頭乱発で面接席に出ることはできない奴だ。

물론 저 나이에 일자리를 소개 받으<sub>ㄹ</sub> 가능성도 제로에 가깝겠지만。

勿論低 나이에 일자리를 紹介 받을 가능성도 제로에 가깝겠지만。

물론 저 나이에 일자리를 소개 받을 가능성도 제로에 가깝겠지만。

もちろんあの年齢で仕事を紹介してもらえる可能性もゼロに近いだろうが。

자신의 보금자리 옆에 잔뜩 쌓인 캔을 찌부러뜨리고 있는 남자도 있다。

自身の 宝庫の隣に たくさん 積み上げた缶を 腐らせている 男子も いる。

자신의 보금자리 옆에 잔뜩 쌓인 캔을 찌부러뜨리고 있는 남자도 있다。

自分の宝庫の隣にたつぷり積もった缶をつぶしている男もいる。

이시가미는 이 길을 오가면서 그런 광경을 여러 번 봐<sub>ㄴ</sub>다。

い時加味는 이 길을 오가면서 그런 光景을 여러 番 見た。

이시가미는 이 길을 오가면서 그런 광경을 여러 번 봤다。

石神はこの道を行き来しながらそのような光景を何度も見た。

그래서 혼잣속으로 그에게 ‘깡통남’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기도 해<sub>ㄴ</sub>다。

그래서 魂잣속으로 그에게 ‘깡筒男’이라는 別名을 붙여 주기도 했다。

그래서 혼잣속으로 그에게 ‘깡통남’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기도 했다。

それで、ひとりの中で彼に‘カントンナム’というニックネームを付けてくれたりもした。

‘깡통남’은 50 세 전후로 보여<sub>ㄴ</sub>다。

‘깡筒男’은 50 歳前後로 보였다。

‘깡통남’은 50 세 전후로 보였다。

「カントンナム」は 50 歳前後と見られた。

생활에 필요하<sub>ㄴ</sub> 물건들을 웬만큼 갖추어<sub>ㄴ</sub>고, 자전거도 있어<sub>ㄴ</sub>다。

生活に必要な 物件들을 何만큼 갖추고, 自転車도 있었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웬만큼 갖추었고, 자전거도 있었다。

生活に必要なものを何とか揃え、自転車もあった。

아마도 캔을 모으<sub>ㄹ</sub> 때 자전거가 기동성을 발휘하<sub>ㄹ</sub> 것이다。

아마도 캔을 모을 때 自転車가 起動性を 發揮할 것이다。

아마도 캔을 모을 때 자전거가 기동성을 발휘할 것이다。

おそらく缶を集めると自転車が機動性を発揮するだろう。

이 집단 거주 지역의 맨 끝, 거기서도 좀 더 후미진 이곳이 여기서는 특등석이<sub>ㄹ</sub> 테<sub>ㄴ</sub>데, 그런 자리

를 차지하<sub>ㄴ</sub> 것으로 보아 ‘깡통남’은 이 집단의 최고참이<sub>ㄹ</sub> 것이라고 이시가미는 짐작해<sub>ㄴ</sub>다。

이 集團居住地域の 맨 끝, 거기서도 좀 더 후미진 이곳이 여기서는 特等석일 텐데, 그런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깡筒男’은 이 集團의 最古參일 것이라고 이時加味는 斟酌했다。

이 집단 거주 지역의 맨 끝, 거기서도 좀 더 후미진 이곳이 여기서는 특등석일 텐데, 그런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깡통남’은 이 집단의 최고참일 것이라고 이시가미는 짐작했다。

この集團居住地域の一番端、そこでももう少し後陣がここは特等席であるはずだが、そんな席

を占めたものとみなして「カントンナム」はこの集團の最高参戦だろうと石神は推測した。

파라<sub>ㄴ</sub> 비닐 시트 주거 대열이 끝나는 곳에서 조금 더 가면 벤치에 앉아 있는 한 남자가 보이<sub>ㄴ</sub>다。

파란 비닐 시트 住居隊列이 끝나는 곳에서 조금 더 가면 벤치에 앉아 있는 한 男子가 보인다。

파란 비닐 시트 주거 대열이 끝나는 곳에서 조금 더 가면 벤치에 앉아 있는 한 남자가 보인다。

青いビニールシート住宅隊列が終わるところでもう少し行くとベンチに座っている一人の男が見える。

원래 **베이지**색이어 **ㄴ** **코트**가 **낡고 더러워져 회색**에 **가까워 보여** **ㄴ**다。

元來 베이지色이었을 코트가 낡고 더러워져 灰色에 가까워 보였다。

원래 베이지색이었을 코트가 낡고 더러워져 회색에 가까워 보였다。

もともとベージュ色だったコートが古くて汚れて灰色に近く見えた。

**코트** 밑에는 **재킷**을 **입어** **ㄴ** **그 속**에는 **와이셔츠**다。

코트 밑에는 재킷을 입었고 그 속에는 와이셔츠다。

코트 밑에는 재킷을 입었고 그 속에는 와이셔츠다。

コートの下にはジャケットを着て、その中にはワイシャツだ。

**넥타이**는 **아마도 코트 호주머니**에 **들어** **ㄴ** **거**라고 **이시가미**는 **추측**해 **ㄴ**다。

넥타이는 아마도 코트 胡주머니에 들었을 거라고 이時加味는 推測했다。

넥타이는 아마도 코트 호주머니에 들었을 거라고 이시가미는 추측했다。

ネクタイはおそらくコートのポケットに聞いただろうと石神は推測した。

**이시가미**는 **그**에게 **‘기사’**라는 **이름**을 **붙여** **ㄴ**다。

이時加味는 그에게 ‘技士’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시가미는 그에게 ‘기사’라는 이름을 붙였다。

石神は彼に「騎士」という名前をつけた。

**어제** **공업 계통**의 **잡지**를 **읽고** **있는 모습**을 **보아** **ㄴ**기 **때문**이다。

어제 工業系統의 雜誌를 읽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어제 공업 계통의 잡지를 읽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昨日工業系統の雑誌を読んでいる様子を見たからだ。

**짧게** **자르** **ㄴ** **머리**에 **수염**도 **말끔히** **깎아** **ㄴ**다。

짧게 자른 머리에 鬚髥도 말끔히 깎았다。

짧게 자른 머리에 수염도 말끔히 깎았다。

短く切った髪にひげもすっきり削った。

**그러니까** **‘기사’**는 **아직** **재취업**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 **ㄴ** 것이다。

그러니까 ‘技士’는 아직 再就業의 길을 拋棄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기사’는 아직 재취업의 길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だから‘記事’はまだ再就職の道をあきらめていないのだ。

**그**가 **일자리**를 **찾으**려면 **우선** **자존심**을 **버려야** **하** **ㄴ** 것이다。

그가 일자리를 찾으려면 于先 自尊心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가 일자리를 찾으려면 우선 자존심을 버려야 할 것이다。

彼が仕事を探すためにはまずプライドを捨て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이시가미**가 **‘기사’**를 **처음** **보** **ㄴ** **것**은 **열흘** **쯤** **전**이어 **ㄴ**다。

이時加味が ‘技士’를 처음 본 것은 열흘 前이었다。

이시가미가 ‘기사’를 처음 본 것은 열흘 前이었다。

石神が「騎士」を初めて見たのは 10 日ほど前だった。

**‘기사’**는 **아직** **이곳** **생활**에 **익숙**하지 **않으** **ㄴ** **듯**해 **ㄴ**다。

‘技士’는 아직 이곳 生活에 익숙하지 않은 듯했다。

‘기사’는 아직 이곳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듯했다。

「記事」はまだこの生活に慣れていないようだった。

**파라** **ㄴ** **비닐 시트** **생활**과는 **선**을 **긋고** **싫어** **하**는 **것**처럼 **보여** **ㄴ**다。

파란 비닐 시트 生活과는 線을 긋고 싫어 하는 것처럼 보였다。

파란 비닐 시트 생활과는 선을 긋고 싫어 하는 것처럼 보였다。



青いビニールシートの生活とは線を引いたくなるように見えた。

그러면서도 노숙자로 살아가야 하는 모순된 현실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저런 곳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露宿者로 살아가야 하는 矛盾된 現實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저런 곳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노숙자로 살아가야 하는 모순된 현실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저런 곳에 있는 것이다。

それにもかかわらずホームレスとして生き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矛盾した現実は何をするのか分からずあんな所にあるのだ。

이시가미는 스미다강을 따라 계속 걸어 다닌다。

이時加味는 스미다江을 따라 繼續 걸었다。

이시가미는 스미다강을 따라 계속 걸었다。

石神は隅田川沿いを歩き続けた。

기요스바시교 바로 앞에서 개 세 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는 노부인을 만나 다닌다。

氣よスバ時教 바로 앞에서 개 세 마리를 데리고 散策하는 老婦人을 만났다。

기요스바시교 바로 앞에서 개 세 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는 노부인을 만났다。

清橋橋のすぐ前で犬三匹を連れて散歩する老婦人に会った。

개는 미니어처다크스훈트로 각각 빨강, 파랑, 분홍 목줄을 매고 있다。

개는 미니어妻닥스훈트로 各各 빨강, 파랑, 粉紅 목줄을매고 있다。

개는 미니어처닥스훈트로 각각 빨강, 파랑, 분홍 목줄을매고 있다。

犬はミニチュアダックスフントでそれぞれ赤、青、ピンクの首を結んでいる。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이시가미를 알아보고 미소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여 다닌다。

가까이 다가가자 녀는 이時加味를 알아보고 微笑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이시가미를 알아보고 미소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近くに近づく と、彼女は石神を調べて笑顔で軽く頭を下げた。

그도 고개를 숙여 답하 后 “안녕하세요。

그도 고개를 숙여 答한 後 “安寧하세요。

그도 고개를 숙여 答한 后 “안녕하세요。

彼も頭を下げて答えた後、「こんにちは。

”라고 말을 건네 다닌다。

”라고 말을 건넸다。

”라고 말을 건넸다。

」と話しかけた。

“오늘 아침은 꽤 춥네요。

“오늘 아침은 꽤 춥네요。

“오늘 아침은 꽤 춥네요。

「今朝はかなり寒いですね。

“정말 그렇군요。

“正말 그렇군요。

“정말 그렇군요。

「本当にそうですね。

그는 얼굴을 찡그려 보여 다닌다。

그는 얼굴을 찡그려 보였다。

그는 얼굴을 찡그려 보였다。

彼は顔をゆがめたように見えた。

노부인 옆을 지나치려는데 “조심해서 다녀와요。

老婦人 옆을 지나치려는데 “操心해서 다녀와요。

노부인 옆을 지나치려는데 “조심해서 다녀와요。

老婦人の隣を通り過ぎようとするのに「気をつけて行ってきます。

”라고 그녀가 덧붙이<sub>ㄴ</sub>다。

”라고 그녀가 덧붙인다。

”라고 그녀가 덧붙인다。

」と彼女が付け加える。

예, 하고 그는 고개를 크게 끄덕<sub>해</sub>ㄴ다。

예, 하고 그는 고개를 크게 끄덕했다。

예, 하고 그는 고개를 크게 끄덕했다。

はい、と彼は頭を大きくうなずいた。

이시가미는 그녀가 편의점 봉지를 드<sub>ㄴ</sub> 모습을 보<sub>ㄴ</sub> 적이 있다。

이時加味는 그녀가 便宜店 封紙를 든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이시가미는 그녀가 편의점 봉지를 든 모습을 본 적이 있다。

石神は彼女が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袋を持った姿を見たことがある。

봉지 속 내용물은 샌드위치 같<sub>아</sub>ㄴ다。

封紙 속 内容物은 샌드위치 같았다。

봉지 속 내용물은 샌드위치 같았다。

袋の中の内容物はサンドイッチのようだった。

아마도 아침 식사였<sub>으</sub>ㄴ 것이다。

아마도 아침 食事였을 것이다。

아마도 아침 식사였을 것이다。

おそらく朝食だったでしょう。

그래서 혼자 사는 여자<sub>이</sub>ㄴ 것이라고 짐작<sub>해</sub>ㄴ다。

그래서 혼자 사는 女子일 것이라고 斟酌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여자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だから一人暮らしの女だろうと推測した。

집은 여기서 그리 멀지 않<sub>다</sub>。

집은 여기서 그리 멀지 않다。

집은 여기서 그리 멀지 않다。

家はここではそれほど遠くない。

전에 그녀가 샌들 신은 모습<sub>을</sub> 보<sub>아</sub>ㄴ 것이다。

前に 그녀가 샌들 신은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전에 그녀가 샌들 신은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前に彼女がサンダル履いた姿を見たのだ。

샌들을 신고서<sub>는</sub> 차를 운전하<sub>ㄴ</sub> 수 없<sub>다</sub>。

샌들을 申告書는 車を 運転할 수 없다。

샌들을 신고서는 차를 운전할 수 없다。

サンダルを届けては車を運転できない。

인생의 반<sub>려</sub>를 여의고 요 근처 아파트에서 개 세 마리와 함께 살고 있<sub>으</sub>ㄴ 것이다。

人生の伴侶를 여의고 요 近處 아파트에서 개 세 마리와 함께 살고 있을 것이다。

인생의 반<sub>려</sub>를 여의고 요 근처 아파트에서 개 세 마리와 함께 살고 있을 것이다。

人生の伴侶を汝矣高ヨ近くのアパートで犬三匹と一緒に暮らしているだろう。

집이 꽤 넓지 않<sub>으</sub>ㄴ 까。

집이 꽤 넓지 않을까。

집이 꽤 넓지 않을까。

家がかなり広くないだろうか。



그렇지 않고서는 개를 세 마리나 기르<sub>ㄴ</sub> 수 없으<sub>ㄴ</sub> 테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개를 세 마리나 기를 수 없을 테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개를 세 마리나 기를 수 없을 테니까。

そうでなければ犬を三匹も飼えないから。

개 세 마리 때문에 더 작으<sub>ㄴ</sub> 집으로 이사하<sub>ㄴ</sub> 수도 없다。

개 세 마리 때문에 더 작은 집으로 移徙할 수도 없다。

개 세 마리 때문에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할 수도 없다。

犬三匹のため、より小さな家に引っ越すこともできない。

은행 융자금은 다 갚았<sub>ㄴ</sub>으<sub>ㄴ</sub>지 모르지만 관리비가 많이 드<sub>ㄴ</sub>다。

銀行融資金은 다 갚았을지 모르지만 管理費가 많이 든다。

은행 융자금은 다 갚았을지 모르지만 관리비가 많이 든다。

銀行融資金は全部返済したかもしれないが、管理費が多い。

그래서 그녀는 절약해야 하<sub>ㄴ</sub>다。

그래서 그女는節約해야 한다。

그래서 그녀는 절약해야 한다。

それで彼女は節約しなければならない。

이 겨울, 그녀는 마침내 미장원에 발길을 끊어<sub>ㄴ</sub>다。

李 겨울, 그女는 마침내 美粧院에 발길을 끊었다。

이 겨울, 그녀는 마침내 미장원에 발길을 끊었다。

この冬、彼女はついに美容院に足を止めた。

염색도 하지 않는다。

染色도 하지 않는다。

염색도 하지 않는다。

染色もしない。

기요스바시교 바로 앞에서 이시가미는 계단을 올라<sub>ㄴ</sub>다。

氣よスバ時教 바로 앞에서 이時加味는階段을 올랐다。

기요스바시교 바로 앞에서 이시가미는 계단을 올랐다。

清橋橋のすぐ前で石神は階段を上がった。

학교로 가려면 여기서 다리를 건너야 하<sub>ㄴ</sub>다。

學校로 가려면 여기서 다리를 건너야 한다。

학교로 가려면 여기서 다리를 건너야 한다。

学校に行くにはここで橋を渡らなければならない。

그러나 그는 반대 방향으로 걷는다。

그러나 그는 反對方向으로 걷는다。

그러나 그는 반대 방향으로 걷는다。

しかし彼は反対方向に歩く。

잠시 후 ‘벤<sub>ㄴ</sub>테<sub>ㄴ</sub>테이’라는 간판이 보여<sub>ㄴ</sub>다。

暫時後 ‘벤텐테이’라는看板이 보였다。

잠시 후 ‘벤텐테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しばらくすると「ベンテンテイ」という看板が見えた。

조그마<sub>ㄴ</sub> 도시락 가게다。

조그만 도시락 가게다。

조그만 도시락 가게다。

小さなお弁当屋だ。

이시가미는 유리문을 열어<sub>ㄴ</sub>다。

이時加味는 琉璃門을 열었다。  
이시가미는 유리문을 열었다。  
石神はガラス扉を開いた。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来てください。

아! 안녕하세요?”

아! 安寧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ああ！こんにちは？」

카운터 안쪽에서 이시가미의 귀에 익은, 그리고 그의 기분을 늘 상쾌하게 해 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카운터 안쪽에서 이時加味の 귀에 익은, 그리고 그의 氣分을 늘 爽快하게 해 주는 목소리가 들렸다。  
카운터 안쪽에서 이시가미의 귀에 익은, 그리고 그의 기분을 늘 상쾌하게 해 주는 목소리가 들렸다。

カウンターのなかから石神の耳に熟した、そして彼の気持ちをいつも爽やかにしてくれる声が聞こえた。

하얀 모자를 쓴 하나오카 야스코가 웃고 있어왔다。

하얀 모자를 쓴 하나오카 야스코가 웃고 있었다。

하얀 모자를 쓴 하나오카 야스코가 웃고 있었다。

白い帽子をかぶった花岡康子が笑っていた。

가게 안에 다른 손님은 없어왔다。

가게 안에 다른 손님은 없었다。

가게 안에 다른 손님은 없었다。

店内に他のゲストはなかった。

그것이 그를 가슴 두근거리게 해왔다。

그것이 그를 가슴 두근거리게 했다。

그것이 그를 가슴 두근거리게 했다。

それが彼に胸をドキドキさせた。

“저, 오늘의 도시락을.....。

“저, 오늘의 도시락을.....。

“저, 오늘의 도시락을.....。

「私、今日のお弁当を.....」 ...。

“네, ‘오늘’ 하나요。

“네, ‘오늘’ 하나요。

“네, ‘오늘’ 하나요。

「はい、「今日」です。

감사합니다!”

感謝합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녀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해왔지만,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는 이시가미도 모르다。

그녀가 밝은 목소리로 對答했지만, 어떤 表情을 짓고 있는지는 이時加味도 모른다。

그녀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는 이시가미도 모른다。

彼女が明るい声で答えたが、どんな表情をしているのかは石神も知らない。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지갑 속을 들여다보고 있어 ㄴ기 때문이다。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紙匣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지갑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顔をまっすぐ眺められず、財布の中を覗いていたからだ。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니 도시락 주문 말고 다른 이야기라도 꺼내 보 ㄴ까 해 ㄴ지만 도무지 하 ㄴ 말  
이 떠오르지 않아 ㄴ다。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니 도시락 注文 말고 다른 이야기라도 꺼내 볼까 했지만 도무지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니 도시락 주문 말고 다른 이야기라도 꺼내 볼까 했지만 도무지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すぐ隣に住む隣人なので、お弁当の注文ではなく、他の話でも取り出してみようかと思った  
が、まったく話す言葉が思い浮かばなかった。

돈을 지불하 ㄴ 때가 되어서야 겨우 “날이 춥네요。

돈을 支拂할 때가 되어서야 겨우 “날이 춥네요。

돈을 지불할 때가 되어서야 겨우 “날이 춥네요。

お金を払う時が来てこそやっと「日が寒いですね。

”라고 말해 보아 ㄴ다。

”라고 말해 보았다。

”라고 말해 보았다。

」と言ってみた。

그러나 중얼거리는 듯한 그 소리는 다른 손님이 들어오면서 문을 닫는 소리에 묻혀 버려 ㄴ다。

그러나 중얼거리는 듯한 그 소리는 다른 손님이 들어오면서 門을 닫는 소리에 묻혀 버렸다。

그러나 중얼거리는 듯한 그 소리는 다른 손님이 들어오면서 문을 닫는 소리에 묻혀 버렸다。

しかし呟くようなその音は、他の客が入ってきて扉を閉める音に埋もれてしまった。

야스코의 주의도 그쪽으로 쏠리고 말아 ㄴ다。

야스코의 主義도 그쪽으로 쏠리고 말았다。

야스코의 주의도 그쪽으로 쏠리고 말았다。

ヤスコの注意もそちらに集まってしまった。

도시락을 손에 들고 이시가미는 가게를 나서 ㄴ다。

도시락을 손에 들고 이時加味는 가게를 나섰다。

도시락을 손에 들고 이시가미는 가게를 나섰다。

弁当を手にとって石神は店を出た。

그리고 이번에는야말로 기요스바시교 쪽으로 향해 ㄴ다。

그리고 이番에는야말로 氣よスバ時教 쪽으로 向했다。

그리고 이번에는야말로 기요스바시교 쪽으로 향했다。

そして今回こそ清橋橋に向かった。

그가 길을 멀리 돌아가는 것은 오로지 ‘베 ㄴ 테 ㄴ 테이’ 때문이다。

그가 길을 멀리 돌아가는 것은 오로지 ‘벤텐테이’ 때문이다。

그가 길을 멀리 돌아가는 것은 오로지 ‘벤텐테이’ 때문이다。

彼が道を離れるのはひたすら'ベンテンテー'のためだ。

아침 출근 시간이 지나자 ‘베 ㄴ 테 ㄴ 테이’도 한가해져 ㄴ다。

아침 出勤時間が 지나자 ‘벤텐테이’도 閑暇해졌다。

아침 출근 시간이 지나자 ‘벤텐테이’도 한가해졌다。

朝出勤時間が過ぎると'ベンテンテイ'ものんびりした。

그러나 그것은 가게를 찾는 손님이 없다는 것일 뿐, 가게 안에서는 점심 준비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것은 가게를 찾는 손님이 없다는 것일 뿐, 가게 안에서는點心準備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것은 가게를 찾는 손님이 없다는 것일 뿐, 가게 안에서는 점심 준비에 들어간다。  
しかしそれはお店を探すお客様がいないということだけで、お店の中では昼食の準備に入る。

계약을 맺고 있는 몇 개 회사에는 12 시까지 도시락을 배달해야 한다。  
契約を 맺고 있는 몇 個會社에는 12時까지 도시락을配達해야 한다。  
계약을 맺고 있는 몇 개 회사에는 12 시까지 도시락을 배달해야 한다。  
契約を結んでいるいくつかの会社には 12時まで弁当を配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야스코도 주방 일을 거든다。  
손님이 없는時間에는 야스코도 廚房 일을 거든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야스코도 주방 일을 거든다。  
客がいない時間には、ヤスコもキッチンの仕事をする。

‘벤 테이’에는 야스코를 포함해 4 명이 일하고 있다。  
‘벤테데이’에는 야스코를 포함해 4 명이 일하고 있다。  
‘벤테데이’에는 야스코를 포함해 4 명이 일하고 있다。  
「ベンテンテイ」には、ヤスコを含めて 4 人が働いている。

요리를 만드는 사람은 경영자이기도 한 요네자와와 그의 아내 사요코다。  
料理를 만드는 사람은 經營者이기도 한 요네자와와 그의 아내 사요코다。  
요리를 만드는 사람은 경영자이기도 한 요네자와와 그의 아내 사요코다。  
料理を作る人は経営者でもある米沢と彼の妻佐代子だ。

배달은 아르바이트 직원 가네코의 일이고, 도시락 판매는 야스코가 도맡아서 한다。  
配達は 아르바이트 職員 가네코의 일이고, 도시락 販賣는 야스코가 도맡아서 한다。  
배달은 아르바이트 직원 가네코의 일이고, 도시락 판매는 야스코가 도맡아서 한다。  
配達はアルバイト職員金子の仕事であり、弁当の販売はヤスコが引き受けて行う。

이 일을 시작하기 전, 야스코는 긴시초의 클럽에서 일했다。  
이 일을 始作하기 前, 야스코는 긴市草의 클럽에서 일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 야스코는 긴시초의 클럽에서 일했다。  
この仕事を始める前に、ヤスコは錦糸町のクラブで働いた。

요네자와는 가끔 그곳에 술을 마시러 오는 손님 중 하나였다。  
요네자와는 가끔 그곳에 술을 마시러 오는 손님 中 하나였다。  
요네자와는 가끔 그곳에 술을 마시러 오는 손님 중 하나였다。  
米沢はたまにそこに酒を飲みに来る客の一つだった。

그 클럽의 고용 마담인 사요코가 요네자와의 아내라는 사실을 야스코가 알게 된 것은 사요코가 가게를 그만두기 직전의 일이었다。

그 클럽의 雇用 마담인 史요코가 요네자와의 아내라는 事實을 야스코가 알게 된 것은 史요코가 가게를 그만두기 直前の 일이었다。  
그 클럽의 고용 마담인 사요코가 요네자와의 아내라는 사실을 야스코가 알게 된 것은 사요코가 가게를 그만두기 직전의 일이었다。  
そのクラブの雇用マダムであるサヨコが米沢の妻だという事実をヤスコが知ることになったのは、サヨコが店を辞める直前のことだった。

야스코는 그 말을 본인에게 직접 들었다。  
야스코는 그 말을 本人에게 直接 들었다。  
야스코는 그 말을 본인에게 직접 들었다。  
ヤスコはその言葉を本人に直接聞いた。

“술집 마담에서 도시락 가게 주인으로 변신하다니, 인생이란 정말 모르 ㄴ 일이야。”

“술집 마담에서 도시락 가게 主人으로 變身하다니, 人生이란 正말 모를 일이야。

“술집 마담에서 도시락 가게 主人으로 變身하다니, 人生이란 正말 모를 일이야。

「居酒屋マダムで弁当屋主人に変身するなんて、人生って本当に分からないことだよ。

손님들은 그렇게 쭈군거려 ㄴ다。

손님들은 그렇게 쭈군거렸다。

손님들은 그렇게 쭈군거렸다。

客たちはそんなに恥ずかしかった。

그러나 사요코는 도시락 가게를 經營하는 것이 부부의 오랜 꿈이어 ㄴ으며 그녀가 술집에서 일하게 되 ㄴ 것도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여 ㄴ다고 털어놓아 ㄴ다。

그러나 史요코는 도시락 가게를 經營하는 것이 夫婦의 오랜 꿈이었으며 그녀가 술집에서 일하게 된 것도 그 꿈을 實現하기 爲해서였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사요코는 도시락 가게를 經營하는 것이 부부의 오랜 꿈이었으며 그녀가 술집에서 일하게 된 것도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고 털어놓았다。

しかしサヨコは弁当屋を經營することが夫婦の長い夢であり、彼女がパブで働くことになったのもその夢を実現するためだったと打ち明けた。

‘벤 ㄴ 테이’가 문을 여 ㄴ 후 야스코는 가끔씩 잠을 내어 그곳에 놀러 가곤 해 ㄴ다。

‘벤테데이’가 門을 연 後 야스코는 가끔씩 잠을 내어 그곳에 놀러 가곤 했다。

‘벤테데이’가 문을 연 후 야스코는 가끔씩 잠을 내어 그곳에 놀러 가곤 했다。

「バンテンテイ」が扉を開いた後、ヤスコはたまにチャンを出してそこに遊びに行った。

가게 經營은 順조로워 보여 ㄴ다。

가게 經營은 順調로워 보였다。

가게 經營은 順조로워 보였다。

店経営は順調に見えた。

그녀가 일을 도와 달라는 제안을 받으 ㄴ 것은 가게를 시작하 ㄴ 지 1 년이 지나 ㄴ으 ㄴ 무렵이어 ㄴ다。

그녀가 일을 도와 달라는 提案을 받은 것은 가게를 始作한 지 1 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그녀가 일을 도와 달라는 제안을 받은 것은 가게를 시작한 지 1 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彼女が仕事を手伝ってほしいとの提案を受けたのは、店を始めて1年が経った頃だった。

모든 것을 부부 둘이서 하기에는 體力적으로 나 물리적으로 나 무리가 있다고 해 ㄴ다。

모든 것을 夫婦 둘이서 하기에는 體力的으로羅 物理적으로羅 무리가 있다고 했다。

모든 것을 부부 둘이서 하기에는 體력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무리가 있다고 했다。

すべてを夫婦二人でするには体力的にも物理的にも無理があるという。

“야스코도 언제까지나 물장사를 하 ㄴ 수야 없지 않겠어? 미사토 짱도 다 컸으니 엄마가 호스티스 일을 하 ㄴ다는 거 ㄴ 부끄럽게 생각하 ㄴ지도 모르고。

“야스코도 언제까지나 물장사를 할 수야 없지 않겠어? 美사토 짱도 다 컸으니 엄마가 호스티스 일을 한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야스코도 언제까지나 물장사를 할 수야 없지 않겠어? 미사토 짱도 다 컸으니 엄마가 호스티스 일을 한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ヤスコもいつまでも水商売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んじゃない？ミサトちゃんもみんな大きかったからママがホスティス仕事をするってことを恥ずかしく思うかもしれないし。

주제넘으 ㄴ 참견이 ㄴ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사요코는 덧붙여 ㄴ다。

주제넘은 參見일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史요코는 덧붙였다。

주제넘은 참견일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사요코는 덧붙였다。

主題以上は僥犬かもしれないが、とサヨコは付け加えた。

미사토는 야스코의 하나뿐이 ㄴ 딸이다。

미사토는 야스코의 하나뿐인 딸이다。

미사토는 야스코의 하나뿐인 딸이다。

ミサトはヤスコの一人だけの娘だ。

미사토 아빠와는 5 년 전에 이혼해 ㄴ다。

未사토 아빠와는 5 年前에 離婚했다。

미사토 아빠와는 5 년 전에 이혼했다。

ミサトパパとは 5 年前に離婚した。

꼭 사요코의 말이 아니더라도 야스코는 이대로 살아가 ㄹ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ㄴ다。

꼭 史요코의 말이 아니더라도 야스코는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꼭 사요코의 말이 아니더라도 야스코는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必ずサヨコの言葉でなくとも、ヤスコはこのまま生きていけないという考えをしていた。

미사토도 미사토지만,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 ㄹ 때 과연 언제까지 클럽에서 자신을 써 주 ㄹ지 의문스러워 ㄴ다。

미사토도 未사토지만, 自身の 나이를 생각할 때 果然 언제까지 클럽에서 自身을 써 줄지 疑問스러웠다。

미사토도 미사토지만, 자신의 나이를 생각할 때 과연 언제까지 클럽에서 자신을 써 줄지 의문스러웠다。

ミサトもミサトだが、自分の年齢を考える時、果たしていつまでクラブで自分を書いてくれるか疑問だった。

단 하루를 생각하 ㄴ 끝에 결론을 내려 ㄴ다。

但 하루를 생각한 끝에 結論을 내렸다。

단 하루를 생각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

ただ一日を考えた末に結論を下した。

클럽에서도 억지로 붙잡지 않아 ㄴ다。

클럽에서도 억지로 붙잡지 않았다。

클럽에서도 억지로 붙잡지 않았다。

クラブでも無理に捕まらなかった。

아니, 오히려 “잘됐 ㄴ 네요。

아니, 오히려 “잘됐네요。

아니, 오히려 “잘됐네요。

いや、むしろ「いいですね。

”라고 드 ㄹ 얘기해 주어 ㄴ다。

”라고들 얘기해 주었다。

”라고들 얘기해 주었다。

』と言ってくれた。

주변 사람들도 나이 드 ㄴ 호스티스의 말로를 염려하고 있어 ㄴ다는 사실을 깨달아 ㄴ다。

周邊 사람들도 나이 든 호스티스의 末路를 念慮하고 있었다는 事實을 깨달았다。

주변 사람들도 나이 든 호스티스의 말로를 염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周辺の人々も年上のホステスの言葉を心配していたという事実を悟った。

작년 봄 미사토가 중학교에 들어가 ㄹ 무렵에는 지금의 연립 주택으로 이사를 해 ㄴ다。

昨年 봄 미사토가 中學校에 들어갈 무렵에는 只今の 連立住宅으로 移徙를 했다。

작년 봄 미사토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지금의 연립 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昨年春ミサトが中学校に入る頃には今の連立住宅に引っ越した。

지난번 살던 곳에서 ‘벤텐데이’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어 ㄴ기 때문이다。

지난번 살던 곳에서 ‘벤텐데이’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이다。

지난번 살던 곳에서 ‘벤텐데이’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이다。



前回住んでいたところから'ベンテンテイ'までは距離が遠すぎたからだ。

이제는 과거와 달리 일이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다.

이제는 過去와 달리 일이 이른 아침부터 始作된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일이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다。

今は過去と違って仕事が早朝から始まる。

그녀는 6 시에 일어나 6 시 반에 자전거를 타고 연립 주택을 나선다.

그녀는 6 時에 일어나 6 時半에 自轉車를 타고 聯立住宅을 나선다。

그녀는 6 시에 일어나 6 시 반에 자전거를 타고 연립 주택을 나선다。

彼女は6時に起き、6時半に自轉車に乗って連立住宅を出る。

녹색 자전거다.

綠色 自轉車다。

녹색 자전거다。

緑の自轉車だ。

“그 고등학교 선생, 오늘 아침에도 와요?”

“그 高等學校 先生, 오늘 아침에도 왔어?”

“그 고등학교 선생, 오늘 아침에도 왔어?”

「あの高校先生、今朝も来た？」

휴식 시간에 사요코가 물어다.

休息時間에 史요코가 물었다。

휴식 시간에 사요코가 물었다。

休憩時にサヨコが尋ねた。

“와요다 가요.”

“왔다 갔어요.”

“왔다 갔어요.”

「来て行きました。」

매일 오잖아요.

毎日 오잖아요.

매일 오잖아요.

毎日来ますね。

야스코가 그렇게 대답하자 사요코는 남편과 얼굴을 마주 보며 빙그레 웃는다.

야스코가 그렇게 對答하자 史요코는 男便과 얼굴을 마주 보며 빙그레 웃었다。

야스코가 그렇게 대답하자 사요코는 남편과 얼굴을 마주 보며 빙그레 웃었다。

ヤスコがそのように答えると、サヨコは夫と顔に向かいながらぐるぐる笑った。

“뭐예요, 기분 나쁘게?”

“뭐예요, 氣分 나쁘게?”

“뭐예요, 기분 나쁘게?”

「なんです、気分悪く？」

“아냐, 별다른 뜻은 아니고, 다만 그 선생이 야스코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어제 우리 둘이 얘기했거든.”

“아냐, 別다른 뜻은 아니고, 다만 그 先生李 야스코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어제 우리 둘이 얘기했거든。”

“아냐, 별다른 뜻은 아니고, 다만 그 선생이 야스코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어제 우리 둘이 얘기했거든。”

「いや、あまり意味がなく、ただその先生がヤスコが好きなんだ」と昨日私たち二人が話したんだ。

“네에?”

“네에?”

“네에?”

「はい？」

야스코가 찻잔을 손에 쥐 ㄴ 채 몸을 뒤로 젖혀 ㄴ다。

야스코가 茶盞을 손에 쥔 채 몸을 뒤로 젖혔다。

야스코가 찻잔을 손에 쥔 채 몸을 뒤로 젖혔다。

ヤスコがマグを手握ったまま体を後ろに濡らした。

“어제는 야스코가 쉬는 날이 어 ㄴ잖아。

“어제는 야스코가 쉬는 날이었잖아。

“어제는 야스코가 쉬는 날이었잖아。

「昨日は、ヤスコが休む日だったじゃないか。

그 선생도 안 와 ㄴ어。

그 先生도 안 왔어。

그 선생도 안 왔어。

その先生も来なかった。

매일 오다가 야스코가 없는 날만 안 오는 거, 이상하지 않아?”

毎日 오다가 야스코가 없는 날만 안 오는 거, 異常하지 않아?”

매일 오다가 야스코가 없는 날만 안 오는 거, 이상하지 않아?”

毎日来て、ヤスコがいない日だけ来ないの、おかしくない？」

“그야 우연이겠죠。

“그야 偶然이겠죠。

“그야 우연이겠죠。

「それは偶然でしょう。

“그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지。

“그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지。

“그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지。

「それ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そうではありませんか？」

사요코가 남편에게 동의를 구해 ㄴ다。

史요코가 男便에게 同意를 求했다。

사요코가 남편에게 동의를 구했다。

サヨコが夫に同意を求めた。

요네자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ㄴ다。

요네자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요네자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米沢は笑って首をうなずいた。

“이 사람 말로는 지금까지 늘 그래 ㄴ대。

“이 사람 말로는 只今까지 늘 그랬대。

“이 사람 말로는 지금까지 늘 그랬대。

「この人の言葉では今までいつもそうだった。

야스코 짱이 쉬는 날에는 그 선생도 도시락을 사러 안 오 ㄴ다는 거야。

야스코 짱이 쉬는 날에는 그 先生도 도시락을 사러 안 온다는 거야。

야스코 짱이 쉬는 날에는 그 선생도 도시락을 사러 안 온다는 거야。

康子ちゃんが休む日には、その先生もお弁当を買いに来ないというの。

혹시나 해했는데 어제 확신했어。

或是나 했는데 어제 確信했어。

혹시나 했는데 어제 확신했어。

もしかしたが昨日確信した。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言わないで。

저는 정기 휴일 외에는 쉬는 날이 몇대로인걸요。

저는 定期 休日 外에는 쉬는 날이 몇대로인걸요。

저는 정기 휴일 외에는 쉬는 날이 몇대로인걸요。

私は定休日以外は休みの日が勝手なんですよ。

요일도 일정하지 않고요。

曜日도 一定하지 않고요。

요일도 일정하지 않고요。

曜日も一定ではありません。

“그러니까 더 이상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異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하다는 거야。

「だからこれ以上のことだ。

그 선생, 옆집에 사냐고 해쥬지? 아마 야스코가 나가는 걸 보고 쉬는 날이냐지 아니냐지 가늠하냐 거야。

그 先生, 옆집에 산다고 했지? 아마 야스코가 나가는 걸 보고 쉬는 날인지 아닌지 가늠할 거야。

그 선생, 옆집에 산다고 했지? 아마 야스코가 나가는 걸 보고 쉬는 날인지 아닌지 가늠할 거야。

その先生、隣の家に住んでいると言った? たぶん、ヤスコが出てくるのを見て休む日なのかどうかを判断するだろう。

“설마요, 제가 집을 나서냐 때 만난 적도 별로 없는데요。

“설마요, 제가 집을 나설 때 萬難的도 별로 없는데요。

“설마요, 제가 집을 나설 때 만난 적도 별로 없는데요。

「まさか、私が家を出たときに会ったこともあまりないのです。

“어디선가 지켜보는 거 아니냐까? 창 너머로 슬쩍 보냐다든지。

“어디線가 지켜보는 거 아닐까? 窓 너머로 슬쩍 본다든지。

“어디선가 지켜보는 거 아닐까? 창 너머로 슬쩍 본다든지。

「どこが見ているのではないか? 窓越しにすつぽり見るとか。

“창으로는 안 보이냐 테냐데.....。

“窓으로는 안 보일 텐데.....。

“창으로는 안 보일 텐데.....。

「窓では見えないだろうが... ..。

“아무려면 어때? 정말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 말을 하냐 거야。

“아무려면 어때? 正말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 말을 할 거야。

“아무려면 어때? 정말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 말을 할 거야。

「どうすればどうですか? 本当に心があれば、いつか言うつもりだ。

우리로서는 야스코 짱 덕분에 단골이 하나 생겼으니 고마우냐 일이지, 뭐。

우리로서는 야스코 짱 德分에 단골이 하나 생겼으니 고마운 일이지, 뭐。

우리로서는 야스코 짱 덕분에 단골이 하나 생겼으니 고마운 일이지, 뭐。

僕たちとしては、靖子ちゃんのおかげで常連がひとつできたの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역시 **기** **시초**에서 **날리던** **사람은** **달라**。

亦是 衞市草에서 날리던 사람은 달라。

역시 衞市草에서 날리던 사람은 달라。

やはり 衞糸町で飛ばした人は違う。

**요네자와**가 **결론**을 **맏듯이** **말해** **ㄴ다**。

요네자와가 結論을 맏듯이 말했다。

요네자와가 結論을 맏듯이 말했다。

米沢が結論を結ぶように言った。

**야스코**는 **쓴웃음**을 **지으며** **차잔에** **남은** **차**를 **마셔** **ㄴ다**。

야스코는 쓴웃음을 지으며 茶盞에 남은 차를 마셨다。

야스코는 쓴웃음을 지으며 차잔에 남은 차를 마셨다。

ヤスコは苦笑をして茶碗に残ったお茶を飲んだ。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그** **고등학교** **선생**을 **떠올려** **보아** **ㄴ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그 高等學校先生을 떠올려 보았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그 高등학교 선생을 떠올려 보았다。

それとともに頭の中でその高校の先生を思い出してみた。

**성은** **이시가미**。

聖恩 이市街美。

성은 이시가미。

城は石神。

**이사** **오** **ㄴ** **날** **밤**에 **인사**하러 **가** **ㄴ** **었다**。

移徙 온 날 밤에 人事하러 갔었다。

이사 온 날 밤에 인사하러 갔었다。

引っ越してきた日の夜に挨拶に行きました。

**고등학교** **선생**이라는 **사실**은 **그때** **들어** **ㄴ다**。

高等學校先生이라는 事實은 그때 들었다。

고등학교 선생이라는 사실은 그때 들었다。

高校先生という事実はその時聞いた。

**둥글둥글**하 **ㄴ** **몸** **집**에 **얼굴**도 **둥그렇고** **커** **ㄴ다**。

둥글둥글한 몸집에 얼굴도 둥그렇고 컸다。

둥글둥글한 몸집에 얼굴도 둥그렇고 컸다。

丸みを帯びた柄に顔も丸くて大きかった。

**그렇지만** **눈**은 **실**처럼 **가늘**다。

그렇지만 눈은 실처럼 가늘다。

그렇지만 눈은 실처럼 가늘다。

でも目は糸のように細い。

**술**이 **적으** **ㄴ** **머리**를 **짧**게 **깎으** **ㄴ** **탓**에 **나이**가 50 에 **가까**워 **보여** **ㄴ** **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젊으** **ㄴ** **지** **모**  
**르** **ㄴ다**。

술이 적은 머리를 짧게 깎은 탓에 나이가 50 에 가까워 보였지만 實際로는 그보다 젊을지 모른다。

술이 적은 머리를 짧게 깎은 탓에 나이가 50 에 가까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젊을지 모른다。

少し少ない頭を短く削ったせいで年齢が 50 に近いように見えたが実際にはそれより若いかもしれない。

**차림새**에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이 **ㄴ** **듯** **늘** **똑** **같으** **ㄴ** **옷**만 **입**고 **다**니 **ㄴ다**。

차림새에 神經 쓰지 않는 타입인 듯 늘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닌다。  
차림새에 神經 쓰지 않는 타입인 듯 늘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닌다。  
装いに気にしないタイプのようにいつも同じ服だけ着て通う。

이번 겨울에는 대체로 갈색 스웨터를 입고 다녀 ㄴ다。

이番 겨울에는 大體로 褐色 스웨터를 입고 다녔다。

이번 겨울에는 대체로 갈색 스웨터를 입고 다녔다。

今冬には概ね茶色のセーターを着て通った。

그 위에 코트를 걸치 ㄴ 모습이 도시락을 사러 오 ㄴ 때의 복장이다。

그 위에 코트를 걸친 모습이 도시락을 사러 올 때의 服裝이다。

그 위에 코트를 걸친 모습이 도시락을 사러 올 때의 복장이다。

その上にコートをかけた姿が弁当を買いに来るときの服装だ。

그래도 세탁은 부지런히 하는지 작으 ㄴ 베란다에 세탁물이 자주 널려 있어 ㄴ다。

그래도 洗濯은 부지런히 하는지 작은 베란다에 洗濯物이 자주 널려 있었다。

그래도 세탁은 부지런히 하는지 작은 베란다에 세탁물이 자주 널려 있었다。

それでも洗濯は熱心にするか小さなベランダに洗濯物がよく広がっていた。

아마도 결혼 경험이 없으 ㄴ 거라고 야스코는 짐작해 ㄴ다。

아마도 結婚 經驗이 없을 거라고 야스코는 斟酌했다。

아마도 결혼 경험이 없을 거라고 야스코는 짐작했다。

おそらく結婚経験がないとヤスコは推測した。

그 선생이 자신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니, 상상도 못해 ㄴ던 소리다。

그 先生이 自身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니, 想像도 못했던 소리다。

그 선생이 자신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니, 상상도 못했던 소리다。

その先生が自分に心を置いているなんて、想像もできなかった声だ。

야스코는 연립 주택의 벽에 가 ㄴ 금마냥, 그의 존재를 알면서도 특별히 의식하 ㄴ 적이 없고 또 의식하 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 와 ㄴ기 때문이다。

야스코는 聯立住宅의 壁에 간 金마냥, 그의 存在를 알면서도 特別히 意識한 적이 없고 또 意識할 必要도 없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야스코는 연립 주택의 벽에 간 금마냥, 그의 존재를 알면서도 특별히 의식한 적이 없고 또 의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靖子は連立住宅の壁に行った金だけ、彼の存在を知りながらも特に意識したことがなく、また意識する必要もないと考えてきたからだ。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어 ㄴ고, 연립 주택의 관리 문제로 한 번 의논하 ㄴ 적도 있어 ㄴ다。

마주치면 人士를 나누었고, 聯立住宅의 管理 問題로 한 番 議論한 적도 있었다。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었고, 연립 주택의 관리 문제로 한 번 의논한 적도 있었다。

遭遇すると挨拶を交わし、連立住宅の管理問題として一度相談したこともあった。

그러 ㄴ에도 야스코는 그 사람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어 ㄴ다。

그럼에도 야스코는 그 사람에 對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야스코는 그 사람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それでも、ヤスコはその人について知ることはほとんどなかった。

수학 교사라는 것도 최근 들어 우연히 알게 되어 ㄴ다。

數學 教師라는 것도 最近 들어 偶然히 알게 되었다。

수학 교사라는 것도 최근 들어 우연히 알게 되었다。

数学教師というのも最近になって偶然知ることになった。

문 앞에 오래되 ㄴ 수학 참고서들이 끈으로 묶이 ㄴ 채 놓여 있는 것을 보아 ㄴ던 것이다。

文 앞에 오래된 數學 參考書들이 끈으로 묶인 채 놓여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문 앞에 오래된 수학 참고서들이 끈으로 묶인 채 놓여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ドアの前に古い数学参考書がひもで縛られたまま置かれているのを見たのだ。

데이트 신청 같은 건 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야스코는 생각해 왔다。

デート申請 같은 건 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야스코는 생각했다。

デート申請 같은 건 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야스코는 생각했다。

デート申請のようなことはしないでほしいとヤスコは考えた。

그리고 그녀는 혼자서 쓴웃음을 지어 왔다。

그리고 그女는 혼자서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서 쓴웃음을 지었다。

そして彼女は一人で苦笑をした。

그 고지식하게 생긴 남자가 데이트 신청을 하면 대체 어떤 표정으로 거절해야 하니까 상상하면서 말이다。

그 고지식하게 생긴 男子가 데이트 申請을 하면 代替 어떤 表情으로 拒絶해야 할까 想像하면서 말이다。

그 고지식하게 생긴 남자가 데이트 신청을 하면 대체 어떤 표정으로 거절해야 할까 상상하면서 말이다。

その高知識にできた男がデートの申し込みをすれば、いったいどんな表情で断るべきか想像しながら言葉だ。

점심 전부터 다시 바빠지기 시작하더니 정오 즈음에는 피크에 달해 왔다。

點心 前부터 다시 바빠지기 始作하더니 正午 즈음에는 피크에 達했다。

점심 전부터 다시 바빠지기 시작하더니 정오 즈음에는 피크에 달했다。

昼食前からまた忙しくなり始め、正午頃はピークに達した。

오후 1 시가 지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어 왔다。

午後1時가 지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오후 1 시가 지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午後1時が過ぎてやっとため息をつくことができた。

평소의 패턴 그대로다。

平素의 패턴 그대로다。

평소의 패턴 그대로다。

普段のパターンそのままだ。

야스코가 금전 등록기의 종이를 갖고 있을 때였다。

야스코가 金錢 登録氣의 종이를 갖고 있을 때였다。

야스코가 금전 등록기의 종이를 갖고 있을 때였다。

ヤスコが金錢登録機の紙を挽いていた時だった。

유리문이 열리더니 누구가가 들어서 왔다。

琉璃門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들어섰다。

유리문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들어섰다。

ガラス扉が開いたら誰かが入った。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하며 그녀는 고개를 들어 손님 얼굴을 보아 왔다。

어서 오세요, 라고 人事하며 그女는 고개를 들어 손님 얼굴을 보았다。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하며 그녀는 고개를 들어 손님 얼굴을 보았다。

さあ、来てください、と挨拶して彼女は頭を上げてゲストの顔を見た。

그리고 그만 그대로 얼어붙고 말아 왔다。

그리고 그만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그리고 그만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そしてやめてそのまま凍ってしまった。

눈이 **화들짝** 열리고 입도 벌어져 **ㄴ다**。

눈이 화들짝 열리고 입도 벌어졌다。

눈이 화들짝 열리고 입도 벌어졌다。

目が激しく開き、口も開いた。

“**좋아** 보이네。

“좋아 보이네。

“좋아 보이네。

「よさそうだね。

**남자**가 **웃어** **ㄴ다**。

男子が 웃었다。

남자가 웃었다。

男が笑った。

**그러나** 그 눈빛은 **거무칙칙**하고 **흐려** **ㄴ다**。

그러나 그 눈빛은 거무칙칙하고 흐렸다。

그러나 그 눈빛은 거무칙칙하고 흐렸다。

しかしその目つきはガチガチと曇り。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當身이 어떻게 여기에.....。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あなたはどうやってここに... ..。

“**뭐** **ㄴ** **그렇게** 놀라나。

“뭘 그렇게 놀라나。

“뭘 그렇게 놀라나。

「何がそんなに驚いたのか。

**나**도 마음만 먹으면 **헤어지** **ㄴ** **마누라**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아내** **ㄴ** **수** 있다고。

나도 마음만 먹으면 헤어진 마누라가 어디 있는지 程度는 알아낼 수 있다고。

나도 마음만 먹으면 헤어진 마누라가 어디 있는지 程度는 알아낼 수 있다고。

私も心だけ食べれば別れたマヌラがどこにあるのかほどは調べられると。

**남자**는 **감색 점퍼** **호주머니**에 **두 손**을 **찢러** **넣으** **ㄴ** **채** **가게** **안**을 **둘러보**아 **ㄴ다**。

男子는 감색 점퍼 호주머니에 두 손을 찢러 넣은 채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남자는 감색 점퍼 호주머니에 두 손을 찢러 넣은 채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男は紺色のジャンパーのポケットに両手を差し込んだまま店の中を見回した。

**뭘** **ㄴ** **가**를 **가늠**해 보는 듯하 **ㄴ** **눈길**이다。

뭘가를 가늠해 보는 듯한 눈길이다。

뭘가를 가늠해 보는 듯한 눈길이다。

何かを測ってみるような注目だ。

“**이제** 와서 무슨 **용건**이야?”

“이제 와서 무슨 用件이야?”

“이제 와서 무슨 용건이야?”

「もう来て何の用件なの？」

**야스코**는 **날카롭게**, **그러나** **목소리**를 낮추어 말해 **ㄴ다**。

야스코는 날카롭게, 그러나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야스코는 날카롭게, 그러나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ヤスコは鋭く、しかし声を下げて言った。

**안**에 있는 **요네자와** **부부**가 **눈치**채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안에 있는 요네자와 夫婦가 눈치채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안에 있는 요네자와 부부가 눈치채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中にある米沢夫婦が気づかないようにしようとするのだ。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ㄴ네。

“아주 눈에 雙心지를 켜네。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네。

「非常に目に双心をつけた。

오랜만에 만나ㄴ데 인사치레로라도 웃어야지。

오랜만에 만났는데 人事치레로라도 웃어야지。

오랜만에 만났는데 인사치레로라도 웃어야지。

久しぶりに会ったのに挨拶レロでも笑わなければならない。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そうではありませんか？」

남자는 능글맞게 미소 지으며 그렇게 말해ㄴ다。

男子は 능글맞게 微笑 지으며 그렇게 말했다。

남자는 능글맞게 미소 지으며 그렇게 말했다。

男はうつすらと微笑んでそう言った。

“볼일 없으면 돌아가。

“볼일 없으면 돌아가。

“볼일 없으면 돌아가。

「ボールがなければ帰ります。

“볼일이 있으니까 온 거야。

“볼일이 있으니까 온 거야。

“볼일이 있으니까 온 거야。

「会うことがあるから来たの。

긴히 의논하ㄴ 일 있는데, 시간 좀 내ㄴ 수 있ㄴ 까?”

緊히 議論할 일 있는데, 時間 좀 낼 수 있을까?”

긴히 의논할 일 있는데,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長い間議論することがありますが、時間を出すことができますか？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言葉にならない音をしないでください。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여?”

働いているのではないか？」

그렇게 반문하고 나서 야스코는 후회해ㄴ다。

그렇게 反問하고 나서 야스코는 後悔했다。

그렇게 반문하고 나서 야스코는 후회했다。

そう反問してからヤスコは後悔した。

일하는 중이 아니라면 이야기를 나누ㄴ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ㄴ 지 모르기 때문이다。

일하는 中이 아니라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모르기 때문이다。

일하는 중이 아니라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모르기 때문이다。

働く中でなければ話を分け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意味で受け入れられるかもしれないからだ。

남자는 혀로 입술을 축이고 말해 ㄴ다。

男子는 혀로 입술을 축이고 말했다。

남자는 혀로 입술을 축이고 말했다。

男は舌で唇を縮めて言った。

“몇 시에 끝나는데?”

“몇 時에 끝나는데?”

“몇 시에 끝나는데?”

「何時に終わるの?」

“당신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當身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당신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あなたの話は聞きたくない。

제발 돌아가。

제발 돌아가。

제발 돌아가。

してください。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そしてまた来ないでください。

“거참, 냉정하네。

“거참, 冷靜하네。

“거참, 냉정하네。

「じゃあ、冷静だね。

“당연하잖아。

“當然하잖아。

“당연하잖아。

「当然じゃない。

야스코는 가게 밖으로 눈길을 돌려 ㄴ다。

야스코는 가게 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야스코는 가게 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ヤスコは店の外に目を向けた。

손님이라도 오지 않나 해 ㄴ지만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ㄴ다。

손님이라도 오지 않나 했지만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손님이라도 오지 않나 했지만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客でも来ないかと言ったが、入ってくる人が誰もいなかった。

“당신이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 ㄴ다면 어쩔 수 없지。

“當身이 그렇게 冷情하게 對한다면 어쩔 수 없지。

“당신이 그렇게 냉정하게 대한다면 어쩔 수 없지。

「あなたがそんなに冷静にするのなら、仕方ない。

그쪽으로 가 보는 수밖에。

그쪽으로 가 보는 수밖에。

그쪽으로 가 보는 수밖에。

そちらに行ってみるしか。

그러고서 남자는 목덜미를 천천히 문질러 ㄴ다。

그러고서 男子는 목덜미를 천천히 문질렀다。  
그러고서 남자는 목덜미를 천천히 문질렀다。  
そして男は首筋をゆっくりこすった。

“그쪽이라니?”

“그쪽이라니?”

“그쪽이라니?”

「そっち？」

야스코는 불길하<sup>ㄴ</sup> 예감에 사로잡혀<sup>ㄴ</sup>다。

야스코는 不吉한 豫感에 사로잡혔다。

야스코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ヤスコは不吉な予感にとらわれた。

“마누라가 이야기를 안 들어 주니 딸이라도 만나 봐야지。

“마누라가 이야기를 안 들어 주니 딸이라도 만나 봐야지。

“마누라가 이야기를 안 들어 주니 딸이라도 만나 봐야지。

「マヌラが話を聞かないと、娘でも会ってみなければならぬ。

중학교가 이 근처라면서?”

中學校가 이 近處라면서?”

중학교가 이 근처라면서?”

中学校がこの辺りだと？」

남자는 야스코가 가장 두려워하<sup>ㄴ</sup> 말을 입에 담아<sup>ㄴ</sup>다。

男子는 야스코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을 입에 담았다。

남자는 야스코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을 입에 담았다。

男は、ヤスコが最も恐れている言葉を口にした。

“그만둬。

“그만둬。

“그만둬。

「やめて。

그 애는 건드리지 마!”

그 애는 건드리지 마!”

그 애는 건드리지 마!”

その子は触れないでください！」

“그럼 당신이 어떻게 좀 해 보든지。

“그럼 當身이 어떻게 좀 해 보든지。

“그럼 당신이 어떻게 좀 해 보든지。

「じゃあ、どうやってやってみようか。

내가 어느 쪽을 택하면 좋을<sup>ㄴ</sup>까?”

내가 어느 쪽을 擇하면 좋을<sup>ㄴ</sup>까?”

내가 어느 쪽을 택하면 좋을<sup>ㄴ</sup>까?”

私はどちらを選んだらいいですか？」

야스코는 한숨을 내쉬어<sup>ㄴ</sup>다。

야스코는 한숨을 내쉬었다。

야스코는 한숨을 내쉬었다。

ヤスコはため息をついた。

어떻게든 이 남자를 쫓아내야 하<sup>ㄴ</sup>다。

어떻게든 이 男子를 쫓아내야 한다。

어떻게든 이 남자를 쫓아내야 한다。

何とかこの男を追い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일은 여섯 시까지야。”

“일은 여섯 時까지야。”

“일은 여섯 시까지야。”

「仕事は6時まで。」

“아침 일찍부터 여섯 시까지라, 일을 너무 오래 시키는 거 아니야?”

“아침 일찍부터 여섯 時까지라, 일을 너무 오래 시키는 거 아니야?”

“아침 일찍부터 여섯 시까지라, 일을 너무 오래 시키는 거 아니야?”

「朝早くから六時まで、仕事をとても長くさせるんじゃない？」

“당신이 상관하 ㄴ 바 아니야。”

“當身이 相關할 바 아니야。”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あなたは気にしません。」

“그럼 여섯 시에 여기로 다시 오 ㄴ 까?”

“그럼 여섯 時에 여기로 다시 올까?”

“그럼 여섯 시에 여기로 다시 올까?”

「それでは六時にここにまた来るか？」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いいえ。」

나가서 오른쪽으로 곧장 가면 크 ㄴ 교차로가 나와。

나가서 오른쪽으로 곧장 가면 큰 交叉路가 나와。

나가서 오른쪽으로 곧장 가면 큰 교차로가 나와。

出て右にまっすぐ行くと大きな交差点が出てきます。

그 바로 앞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으니까 거기서 여섯 시까지 와。

그 바로 앞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으니까 거기서 여섯 時까지 와。

그 바로 앞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으니까 거기서 여섯 시까지 와。

その直前にファミリーレストランがあるからそこで六時まで来て。

“알아 ㄴ 어。

“알았어。

“알았어。

「わかりました。」

꼭 와야 해。

꼭 와야 해。

꼭 와야 해。

ぜひ来てね。

만일 안 오면.....。

萬一 안 오면.....。

만일 안 오면.....。

もし来なければ... ..。

“가 ㄴ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行くよ。」

그러니까 빨리 나가。

그러니까 빨리 나가。

그러니까 빨리 나가。

だから早く出て。

“알아<sup>ㅅ</sup>어。

“알았어。

“알았어。

「わかりました。

정말 매정하네。

正말 매정하네。

정말 매정하네。

本当に売りますね。

남자는 다시 한 번 가게 안을 둘러보<sup>ㄴ</sup> 뒤 유리문을 거칠<sup>ㄹ</sup>게 닫고 나가<sup>ㅅ</sup>다。

男子는 다시 한 番 가게 안을 둘러본 뒤 琉璃門을 거칠게 닫고 나갔다。

남자는 다시 한 번 가게 안을 둘러본 뒤 유리문을 거칠게 닫고 나갔다。

男はもう一度店の中を見回した後、ガラス扉を荒く閉めて出た。

야스코는 손으로 이마를 짚어<sup>ㅅ</sup>다。

야스코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야스코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ヤスコは手で額をつかんだ。

가벼우<sup>ㄴ</sup> 두통이 일어<sup>ㅅ</sup>다。

가벼운 頭痛이 일었다。

가벼운 두통이 일었다。

軽い頭痛が起こった。

속도 메스꺼려<sup>ㅅ</sup>다。

속도 메스꺼렸다。

속도 메스꺼렸다。

スピードがめちゃくちゃだった。

절망감이 천천히 그녀의 가슴속으로 번져 나가<sup>ㅅ</sup>다。

絶望感が 천천히 彼女の 가슴속으로 번져 나갔다。

절망감이 천천히 그녀의 가슴속으로 번져 나갔다。

絶望感がゆっくりと彼女の胸の中に広がっていった。

도가시 신지와 결혼하<sup>ㄴ</sup> 것은 8 년 전이어<sup>ㅅ</sup>다。

都家時臣智와 結婚한 것은 8 年前이었다。

도가시 신지와 결혼한 것은 8 년 전이었다。

道鹿市シンジと結婚したのは 8 年前だった。

당시 야스코는 아카사카에서 호스티스 일을 하고 있어<sup>ㅅ</sup>다。

當時 야스코는 아카사카에서 호스티스 일을 하고 있었다。

당시 야스코는 아카사카에서 호스티스 일을 하고 있었다。

當時ヤスコは赤坂でホスティス仕事をしていた。

도가시는 그 가게에 드나드는 손님 중 하나여<sup>ㅅ</sup>다。

도가시는 그 가게에 드나드는 손님 中 하나였다。

도가시는 그 가게에 드나드는 손님 중 하나였다。

道鹿市はその店に出入りする客のひとつだった。

외제 차 세일즈맨이어<sup>ㅅ</sup>던 그는 씹씹이가 좋아<sup>ㅅ</sup>다。

外製車 세일즈맨이었던 그는 씹씹이가 좋았다。

외제 차 세일즈맨이었던 그는 씹씹이가 좋았다。



外除車セールスマンだった彼はみことばが良かった。

비싼 물건을 선물하기도 하고, 고급 레스토랑에도 데려가ㄴ다。

비싼物件을 贈物하기도 하고, 高級 레스토랑에도 데려갔다。

비싼 물건을 선물하기도 하고, 고급 레스토랑에도 데려갔다。

高価なものをプレゼントしたり、高級レストランにも連れて行った。

그래서 그에게 프러포즈를 받아ㄴ으ㄴ 때는 마치 영화 '프리티 우먼'의 줄리아 로버츠라도 되ㄴ 기  
분이어ㄴ다。

그래서 그에게 프러포즈를 받았을 때는 마치 映畫 '프리티 우먼'의 줄리아 로버츠라도 된 氣分  
이었다。

그래서 그에게 프러포즈를 받았을 때는 마치 영화 '프리티 우먼'의 줄리아 로버츠라도 된  
기분이었다。

それで彼にプロポーズを受けた時は、まるで映画『プリティウーマン』のジュリア・ロバー  
ツでもされた気分だった。

당시 야스코는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ㄴ 뒤 일하면서 혼자 딸을 키우는 생활에 지쳐 있어ㄴ다。

當時 야스코는 첫 番째 結婚에 失敗한 뒤 일하면서 혼자 딸을 키우는 生活에 지쳐 있었다。

당시 야스코는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뒤 일하면서 혼자 딸을 키우는 생활에 지쳐 있었다。

当時、ヤスコは最初の結婚に失敗した後、働きながら一人で娘を育てる生活に疲れていた。

결혼 초에는 행복해ㄴ다。

結婚 初에는 幸福했다。

결혼 초에는 행복했다。

結婚の初めには幸せだった。

도가시의 안정적인 수입 덕분에 야스코는 물장사에서 손을 씻으ㄴ 수 있어ㄴ다。

道家時의 安定的인 輸入 德分에 야스코는 물장사에서 손을 씻을 수 있었다。

도가시의 안정적인 수입 덕분에 야스코는 물장사에서 손을 씻을 수 있었다。

東賀市の安定収入のおかげで、ヤスコは水商店で手を洗うことができた。

또한 도가시는 미사토를 무척 귀여워해ㄴ다。

또한 도가시는 미사토를 무척 귀여워했다。

또한 도가시는 미사토를 무척 귀여워했다。

また、道鹿市はミサトをととても可愛くした。

미사토도 그를 아버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여ㄴ다。

미사토도 그를 아버지로 받아들이려고 努力하는 모습이 엿보였다。

미사토도 그를 아버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였다。

ミサトも彼を父として受け入れようと努力する姿が垣間見えた。

파탄은 갑자기 찾아와ㄴ다。

破綻은 갑자기 찾아왔다。

파탄은 갑자기 찾아왔다。

破綻は突然訪れた。

도가시가 회사에서 잘리ㄴ 것이다。

道家市街 會社에서 잘린 것이다。

도가시가 회사에서 잘린 것이다。

とが市が会社で切ったのだ。

오랫동안 회사 공금을 횡령하ㄴ 사실이 들통나ㄴ기 때문이어ㄴ다。

오랫동안 會社 公金を 横領한 事實이 들통났기 때문이었다。

오랫동안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이었다。

長い間会社公金を横領した事実がばらばらしたためだった。

회사에서 그를 고소하지 않으는 것은 관리를 잘못하 책임을 추궁당하니까 두려워했던 상사들이 교묘하게 사태를 은폐하 덕분에이다.

會社에서 그를告訴하지 않은 것은管理를 잘못된責任을追窮當할까 두려웠던上司들이巧妙하게事態를隱蔽한徳分이었다。

회사에서 그를 고소하지 않은 것은 관리를 잘못된 책임을 추궁당할까 두려웠던 상사들이 교묘하게 사태를 은폐한 덕분이었다。

會社で彼を訴えなかったのは、管理を誤った責任を追及されるのか恐れた上司たちが巧妙に事態を隱蔽したおかげだった。

그러니까 도가시는 바로 그 더러운 돈을 아카사카의 밤거리에 뿌리고 다녀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가시는 바로 그 더러운 돈을 아카사카의 밤거리에 뿌리고 다녔던 것이다。

그러니까 도가시는 바로 그 더러운 돈을 아카사카의 밤거리에 뿌리고 다녔던 것이다。

だから道鹿市はまさにその汚いお金を赤坂の夜の街に振りかけて通ったのだ。

그 이후로 도가시는 사람이 변해이다。

그以後로 도가시는 사람이變했다。

그 이후로 도가시는 사람이 변했다。

それ以来、道家市は人が変わった。

아니, 본성이 드러나다고 하는 편이 옳은지 모르다。

아니, 本性이 드러났다고 하는便이 옳을지 모른다。

아니, 本性이 드러났다고 하는 편이 옳을지 모른다。

いや、本性があらわれたという方が正しいかもしれない。

그는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방바닥에서 뒹굴거나 아니면 노름을 하러 나가이다。

그는 일도 하지 않고 하루終日 房바닥에서 뒹굴거나 아니면 노름을 하러 나갔다。

그는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방바닥에서 뒹굴거나 아니면 노름을 하러 나갔다。

彼は仕事もせず、一日中部屋の床から転がったり、賭けに出かけた。

그런 일로 잔소리를 하면 폭력을 휘둘러이다。

그런 일로 잔소리를 하면暴力을 휘둘렀다。

그런 일로 잔소리를 하면 폭력을 휘둘렀다。

そんなことで騒ぎをすると暴力を振り回した。

그리고 늘 취하 채 흥포하 눈을 희번덕거리이다。

그리고 늘 取한 채 凶暴한 눈을 희番徳거렸다。

그리고 늘 취한 채 흥포한 눈을 희번덕거렸다。

そしていつも酔ったまま凶暴な目を希々とした。

그 당연하 귀결이지만, 야스코는 다시 일하러 나가야 해이다。

그當然한歸結이지만, 야스코는 다시 일하러 나가야 했다。

그 당연한 귀결이지만, 야스코는 다시 일하러 나가야 했다。

その当然の帰結だが、ヤスコは再び働きに行か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그러나 그렇게 번 돈을 도가시는 폭력으로 빼앗아가이다。

그러나 그렇게 번 돈을 도가시는暴力으로 빼앗아 갔다。

그러나 그렇게 번 돈을 도가시는 폭력으로 빼앗아 갔다。

しかし、そのように稼いだお金を盗む暴力で奪われていった。

그녀가 돈을 숨기더라도 하면 월급날 그녀보다 먼저 가게로 찾아와 제멋대로 돈을 받아가기까지 해이다。

그녀가 돈을 숨기더라도 하면 月給날 그女보다 먼저 가게로 찾아와 제멋대로 돈을 받아가기까지 했다。

그녀가 돈을 숨기기라도 하면 월급날 그녀보다 먼저 가게로 찾아와 제멋대로 돈을 받아 가기까지 했다。

彼女がお金を隠すこともできれば、給料日彼女より先にお店に来て、勝手にお金を受け取るまでした。

미사토는 의붓아버지를 두려워하게 돼 ㄴ다。

미사토는 의붓아버지를 두려워하게 됐다。

미사토는 의붓아버지를 두려워하게 됐다。

ミサトは義父を恐れるようになった。

집에 도가시와 단둘이 있는 것이 무섭다며 야스코가 일하는 가게로 찾아오는 일도 있어 ㄴ다。

집에 도가시와 단둘이 있는 것이 무섭다며 야스코가 일하는 가게로 찾아오는 일도 있었다。

집에 도가시와 단둘이 있는 것이 무섭다며 야스코가 일하는 가게로 찾아오는 일도 있었다。

家に道鹿市と二人がいるのが怖いと言って、ヤスコが働くお店にやってくる事もあった。

야스코는 도가시에게 이혼을 요구해 ㄴ지만 그는 들으 ㄴ 척도 하지 않아 ㄴ다。

야스코는 都家時에게離婚을要求했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야스코는 도가시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ヤスコは東鹿市に離婚を求めたが、彼は聞いたふりをしなかった。

계속 요구하면 폭력을 휘둘러 ㄴ다。

繼續要求하면暴力을 휘둘렀다。

계속 요구하면 폭력을 휘둘렀다。

要求し続けると暴力を振り回した。

고민 끝에 그녀는 손님한테 소개 받으 ㄴ 변호사에게 상담을 청해 ㄴ다。

苦悶 끝에 그녀는 손님한테紹介 받은辯護士에게相談을請했다。

고민 끝에 그녀는 손님한테 소개 받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청했다。

悩みの末、彼女は客に紹介を受けた弁護士に相談を求めた。

그리고 그 변호사가 움직이 ㄴ 끝에 도가시는 마지못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어 ㄴ다。

그리고 그辯護士가 움직인 끝에 도가시는 마지못해離婚書類에圖章을 찍게 되었다。

그리고 그 변호사가 움직인 끝에 도가시는 마지못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다。

そしてその弁護士が動いた末に、道家市は間違いなく離婚書類に塗装を撮ることになった。

재판으로 가면 자신에게 승산이 없으 ㄴ 뿐더러 위자료까지 물어 주어야 하 ㄴ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ㄴ기 때문이다。

再版으로 가면自身에게勝算이 없을 뿐더러慰藉料까지 물어 주어야 한다는事實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으로 가면 자신에게 승산이 없을 뿐더러 위자료까지 물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裁判に行けば自分に勝算がないだけで慰謝料まで聞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事実を知っていたからだ。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 ㄴ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問題가解決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

しかし、それですべての問題が解決され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이혼 후에도 도가시는时时때때로 야스코 앞에 모습을 나타내 ㄴ다。

離婚後에도 도가시는時々때때로 야스코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혼 후에도 도가시는时时때때로 야스코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離婚後も、道鹿市は時々時々靖子の前に姿を現した。

용건은 늘 정해져 있어 ㄴ다。

用件은 늘 定해져 있었다。

용건은 늘 정해져 있었다。

用件はいつも決まっていた。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일**하 **ㄴ** 테니 **재결합**하자는 것이어 **ㄴ**다。

마음을 고쳐먹고 熱心히 일할 테니 再結合하자는 것이었다。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일할 테니 재결합하자는 것이었다。

心を直して食べて一生懸命働くから再会しようということだった。

**야스코**가 **피하**면 그는 **미사토**에게 **접근**해 **ㄴ**다。

야스코가 避하면 그는 미사토에게 接近했다。

야스코가 피하면 그는 미사토에게 접근했다。

ヤスコが避けたら、彼はミサトに近づいた。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일도 **있어** **ㄴ**다。

學校 앞에서 기다리는 일도 있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일도 있었다。

学校の前で待つこともあった。

무릎까지 **끓으** **ㄴ** 그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연극**이란 **것**을 **알**면서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ㄴ**다。

무릎까지 끓은 그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演劇이란 것을 알면서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릎까지 끓은 그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연극이란 것을 알면서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膝まで開いた彼の姿を見ていると、演劇ということを知りながらも哀れだという気がした。

**한때**는 **부부 사이**여 **ㄴ**니 **일말**의 **정**이 **남아 있**어 **ㄴ**는지도 **모르** **ㄴ**다。

한때는 夫婦 사이였으니 一抔의 情이 남아 있었는지도 모른다。

한때는 부부 사이였으니 일말의 정이 남아 있었는지도 모른다。

かつては夫婦の間だったので一言の情が残っていたのかもしれない。

**결국** **야스코**는 **그**에게 **돈**을 **주어 보내** **ㄴ**다。

結局 야스코는 그에게 돈을 주어 보냈다。

결국 야스코는 그에게 돈을 주어 보냈다。

結局、ヤスコは彼にお金を与えた。

**그것**이 **잘못**이어 **ㄴ**다。

그것이 잘못이었다。

그것이 잘못이었다。

それが間違っていた。

**맛**을 **들**어 **ㄴ** **도가**시는 **더욱 자주** **찾아와** **ㄴ**다。

맛을 들인 都家時は 더욱 자주 찾아왔다。

맛을 들인 도가시는 더욱 자주 찾아왔다。

味をつけた東鹿市は、より頻繁に訪れてきた。

**그**의 **태도**는 **비굴**하면서 **점점 뻔뻔**스러워 **져** **가** **ㄴ**다。

그의 態度는 卑屈하면서 漸漸 뻔뻔스러워져 갔다。

그의 태도는 비굴하면서 점점 뻔뻔스러워져 갔다。

彼の態度は卑屈ながらもますます恥ずかしくなっていた。

**야스코**는 **가게**를 **옮기**고 **주소**를 **바꿔** **ㄴ**다。

야스코는 가게를 옮기고 住所를 바꿨다。

야스코는 가게를 옮기고 주소를 바꿨다。

ヤスコは店を移して住所を変えた。

**그리고** **미사토**에게는 **미안**하 **ㄴ** **일**이지만 **학교**도 **옮겨** **ㄴ**다。

그리고 미사토에게는 未安한 일이지만 學校도 옮겼다。

그리고 미사토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학교도 옮겼다。

そしてミサトには申し訳ないことだが学校も移った。

그리하여 기<sub>ㄴ</sub>시초에 있는 클럽에서 일하게 되<sub>ㄴ</sub> 후로는 도가시가 나타나지 않아<sub>ㄴ</sub>다。

그리하여 긴市草에 있는 클럽에서 일하게 된 後로는 도가시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긴시초에 있는 클럽에서 일하게 된 후로는 도가시가 나타나지 않았다。

そうして錦糸町にあるクラブで働くようになった後には、とが市が現れなかった。

그 후 다시 한 번 이사하고 ‘벤<sub>ㄴ</sub>테<sub>ㄴ</sub>테이’에서 일하게 되<sub>ㄴ</sub> 것이 어느새 1 년이 되어 가<sub>ㄴ</sub>다。

그 후 다시 한 番 移徙하고 ‘벤텐테이’에서 일하게 된 것이 어느새 1 年이 되어 간다。

그 후 다시 한 번 이사하고 ‘벤텐테이’에서 일하게 된 것이 어느새 1 년이 되어 간다。

その後、もう一度引っ越して「ベンテンテー」で働くことになったのがいつのまにか 1 年になっ  
ていく。

더는 그 악마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없으<sub>ㄴ</sub> 거라고 믿고 있던 터여<sub>ㄴ</sub>다。

더는 그 惡魔에게 괴롭힘을 當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던 터였다。

더는 그 악마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던 터였다。

もう、その悪魔にいじめられることがないと信じていたはずだった。

요네자와 부부에게는 절대로 폐를 끼치<sub>ㄴ</sub> 수 없다。

요네자와 夫婦에게는 絶對로 肺를 끼칠 수 없다。

요네자와 부부에게는 절대로 폐를 끼칠 수 없다。

米沢夫婦には絶對に迷惑をかけることができない。

미사토에게 들켜서도 안 되<sub>ㄴ</sub>다。

미사토에게 들켜서도 안 된다。

미사토에게 들켜서도 안 된다。

ミサトにバレてはいけない。

어떻게든 나 혼자서 이 남자가 두 번 다시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sub>ㄴ</sub>다。

어떻게든 羅 혼자서 이 男子가 두 番 다시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든 나 혼자서 이 남자가 두 번 다시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何とか私一人でこの男が二度と戻ってこ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벽시계를 바라보며 야스코는 결의를 굳히<sub>ㄴ</sub>다。

壁時計를 바라보며 야스코는 決意를 굳혔다。

벽시계를 바라보며 야스코는 결의를 굳혔다。

壁時計を眺め、ヤスコは決意を固めた。

약속 시각이 되자 야스코는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향해<sub>ㄴ</sub>다。

約束時刻이 되자 야스코는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向했다。

약속 시각이 되자 야스코는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約束の時刻になると、ヤスコはファミリーレストランに向かった。

도가시는 창가 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어<sub>ㄴ</sub>다。

도가시는 窓가 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도가시는 창가 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道鹿市は窓際の席に座ってタバコを吸っていた。

테이블 위에 커피 컵이 놓여 있는 걸 보<sub>ㄴ</sub> 야스코는 자리에 앉으면서 종업원에게 코코아를 주문해<sub>ㄴ</sub>다。

테이블 위에 커피 컵이 놓여 있는 걸 본 야스코는 자리에 앉으면서 従業員에게 코코아를 注文했다。

테이블 위에 커피 컵이 놓여 있는 걸 본 야스코는 자리에 앉으면서 종업원에게 코코아를  
주문했다。

テーブルの上にコーヒーカップが置かれているのを見たヤスコは席に座りながら従業員にココアを注文した。

소프트드링크를 주문하면 무료로 리필도 해 주지만 오래 앉아 있으니까 생각이 없어진다。

소프트드링크를 注文하면 無料で 李필도 해 주지만 오래 앉아 있을 생각이 없었다。

소프트드링크를 주문하면 무료로 리필도 해 주지만 오래 앉아 있을 생각이 없었다。

ソフトドリンクを注文すると無料で詰め替えもしてくれるが、長く座っているつもりはなかった。

“용건이 뭐야?”

“用件이 뭐야?”

“용건이 뭐야?”

「用件は何ですか？」

도가시를 노려보며 물어낸다。

道가市를 노려보며 물었다。

도가시를 노려보며 물었다。

道鹿市を狙って聞いた。

그는 빙그레 미소를 지어낸다。

그는 빙그레 微笑를 지었다。

그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彼はビングレの笑顔を作った。

“그렇게 서두르니까 거 없잖아。

“그렇게 서두를 거 없잖아。

“그렇게 서두를 거 없잖아。

「そんなに急いでいないじゃないか。

“나도 바쁜 몸이야。

“나도 바쁜 몸이야。

“나도 바쁜 몸이야。

「私も忙しい体だ。

빨리 용건이나 말해。

빨리 用件이나 말해。

빨리 용건이나 말해。

早く用件や教えてください。

“야스코。

“야스코。

“야스코。

「ヤスコ。

도가시가 손을 뻗어낸다。

道가市街 손을 뻗었다。

도가시가 손을 뻗었다。

道鹿市が手を伸ばした。

테이블에 놓인 그녀의 손을 잡으려는 것 같아진다。

테이블에 놓인 그女の 손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

테이블에 놓인 그녀의 손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

テーブルに置かれた彼女の手を握ろうと思った。

그것을 눈치채고 그녀가 황급히 손을 끌어당기자 그가 입술을 비틀어낸다。

그것을 눈치채고 그女가 遑急히 손을 끌어당기자 그가 입술을 비틀었다。

그것을 눈치채고 그녀가 황급히 손을 끌어당기자 그가 입술을 비틀었다。



それに気づき、彼女が慌てて手を引っ張ると、彼が唇をねじった。

“이거 기분 나쁘ㄴ걸。”

“이거 氣分 나쁜걸。”

“이거 기분 나쁜걸。”

「これは気持ち悪いこと。」

“당연하잖아。”

“當然하잖아。”

“당연하잖아。”

「当然じゃない。」

대체 무슨 용건으로 내 뒤를 따라다니는 거야?”

代替 무슨 用件으로 내 뒤를 따라다니는 거야?”

대체 무슨 용건으로 내 뒤를 따라다니는 거야?”

一体どんな用件で私の後ろに通うの？」

“그런 식으로 말하면 섭섭하지。”

“그런 式으로 말하면 섭섭하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섭섭하지。”

「そんなふうに言えば摂摂しない。」

이래 봐도 나는 진지하ㄴ데 말이야。

이래 봐도 나는 眞摯한데 말이야。

이래 봐도 나는 진지한데 말이야。

以来、私も真剣ですが。

“뭐가 진지하다는 거야?”

“뭐가 眞摯하다는 거야?”

“뭐가 진지하다는 거야?”

「何が本気だって？」

그때 종업원이 코코아를 가져와ㄴ다。

그때 従業員이 코코아를 가져왔다。

그때 종업원이 코코아를 가져왔다。

その時従業員がココアを持ってきた。

야스코는 재빨리 컵을 쥐어ㄴ다。

야스코는 재빨리 컵을 쥐었다。

야스코는 재빨리 컵을 쥐었다。

ヤスコはすぐにカップを握った。

얼른 마시고 일어서려는 생각이어ㄴ다。

얼른 마시고 일어서려는 생각이었다。

얼른 마시고 일어서려는 생각이었다。

さっさと飲んで立ち上がろうと思った。

“당신, 아직 혼자지?”

“當身, 아직 혼자지?”

“당신, 아직 혼자지?”

「あなた、まだ一人ですか？」

도가시가 눈을 치뜨며 물어ㄴ다。

道가市街 눈을 치뜨며 물었다。

도가시가 눈을 치뜨며 물었다。

道鹿市が目を覚まして尋ねた。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當身이랑 무슨 相關이야?”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それはあなたと何の関係ですか？」

“여자 혼자 자식을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女子 혼자 子息을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여자 혼자 자식을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女性一人で子供を育てるのがどれほど難しいか。

앞으로 돈도 점점 많이 드는데 말이지。

앞으로 돈도 漸漸 많이 들 텐데 말이지。

앞으로 돈도 점점 많이 들 텐데 말이지。

これからお金もどんどん聞いてくるのにね。

그런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는 거로는 막막하지 않겠어? 그래서 말이는데, 다시 잘 생각해 봐。

그런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는 걸로는 寔寔하지 않겠어? 그래서 말인데, 다시 잘 생각해 봐。

그런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는 걸로는 막막하지 않겠어? 그래서 말인데, 다시 잘 생각해 봐。

そんなお弁当屋で働くことで、幕を閉じませんか？だから言葉なのに、またよく考えてみて。

나도 옛날과는 달라。

나도 옛날과는 달라。

나도 옛날과는 달라。

私も昔とは違う。

“다르다고? 그럼 하나 물어보겠는데, 일이나 하고 있는 거야?”

“다르다고? 그럼 하나 물어보겠는데, 일이나 하고 있는 거야?”

“다르다고? 그럼 하나 물어보겠는데, 일이나 하고 있는 거야?”

「違うって？それでは一つ聞いてみますが、仕事をしているの？」

“물론이지。

“勿論이지。

“물론이지。

「もちろん。

일자리는 이미 알아 났어。

일자리는 이미 알아 났어。

일자리는 이미 알아 났어。

仕事は既に知っておいた。

“그럼 지금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

“그럼 只今は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

“그럼 지금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

「じゃあ今は仕事をしないって言うじゃないか。

“허 참, 일자리가 있다니까 그러네。

“許 참, 일자리가 있다니까 그러네。

“허 참, 일자리가 있다니까 그러네。

「ほん、仕事があるからね。

다음 달부터 일하기로 해 났어。

다음 달부터 일하기로 했어。

다음 달부터 일하기로 했어。

来月から働くことにした。

새로 생기는데, 일단 궤도에 오르기만 하면 당신도 고생 끝이라고。

새로 생긴 會社인데, 一旦 軌道에 오르기만 하면 當身도 苦生 끝이라고。

새로 생긴 회사인데, 일단 궤도에 오르기만 하면 당신도 고생 끝이라고。

新しくできた会社なのに、一度軌道に乗るだけであなたも苦勞の終わりだと。

“돼ㄴ어。

“됐어。

“됐어。

「できた。

그만큼 벌면 다른 상대를 찾으면 되잖아。

그만큼 벌면 다른 相對를 찾으면 되잖아。

그만큼 벌면 다른 상대를 찾으면 되잖아。

それだけ稼げば他の相手を探せばいいじゃないか。

제발 부탁이니까 나 좀 내버려 둬。

제발 付託이니까 나 좀 내버려 둬。

제발 부탁이니까 나 좀 내버려 둬。

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야스코, 나는 당신이 필요해。

“야스코, 나는 當身이 必要해。

“야스코, 나는 당신이 필요해。

「ヤスコ、私はあなたがが必要です。

도가시가 다시 손을 뺀어 컵을 쥐고 있는 야스코의 손을 잡으려 해ㄴ다。

都家時가 다시 손을 뺀어 컵을 쥐고 있는 야스코의 손을 잡으려 했다。

도가시가 다시 손을 뺀어 컵을 쥐고 있는 야스코의 손을 잡으려 했다。

道鹿市が再び手を伸ばしてカップを握っているヤスコの手を握ろうとした。

만지지 마, 하고 그녀가 그의 손을 뿌리쳐ㄴ다。

만지지 마, 하고 그女가 그의 손을 뿌리쳤다。

만지지 마, 하고 그녀가 그의 손을 뿌리쳤다。

触れないで、彼女は彼の手を振りました。

그 바람에 컵 속 코코아가 넘쳐 도가시의 손에 쏟아져ㄴ다。

그 바람에 컵 속 코코아가 넘쳐 도가시의 손에 쏟아졌다。

그 바람에 컵 속 코코아가 넘쳐 도가시의 손에 쏟아졌다。

その風にカップの中のココアがあふれて、嵯峨市の手に注がれた。

도가시가 “앗, 뜨거워!”라며 손을 끌어당겨ㄴ다。

도가市街 “앗, 뜨거워!”라며 손을 끌어당겼다。

도가시가 “앗, 뜨거워!”라며 손을 끌어당겼다。

道鹿市が「あつ、熱く！」と手を引いた。

다음 순간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 증오의 빛이 어려ㄴ다。

다음 瞬間 그女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 憎惡의 빛이 어렸다。

다음 순간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 증오의 빛이 어렸다。

次の瞬間、彼女を見つめる彼の目に憎しみの光が若かった。

“그런 번지르르하ㄴ 말에 내가 속으ㄴ 것 같아? 지난번에도 말해ㄴ지만 나는 당신 곁으로 돌아가ㄴ  
생각 눈곱만큼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 포기해。

“그런 번지르르한 말에 내가 속을 것 같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나는 當身 곁으로 돌아갈 생각  
눈곱만큼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 拋棄해。

“그런 번지르르한 말에 내가 속을 것 같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나는 당신 곁으로 돌아갈 생각  
눈곱만큼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 포기해。

「そんな煩わしい言葉に私はだまされていると思いますか? 前回も言っただけど私はあなたのそば  
に帰るつもりだと言うほどにないからもうやめてあきらめて。

알아ㄴ어?”

알았어?”

알았어?"

わかりましたか？」

야스코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도가시가 말없이 그녀를 노려보아 다.

야스코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도가시가 말없이 그녀를 노려보았다.

야스코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도가시가 말없이 그녀를 노려보았다.

靖子が席で立ち上がると、ドガシが言葉なしに彼女を狙った。

그 눈길을 무시하 채 그녀는 자신의 찻값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출입문으로 향해 다.

그 눈길을 無視한 채 그녀는 自身の 茶入 값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出入門으로 向했다.

그 눈길을 무시한 채 그녀는 자신의 찻값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출입문으로 향했다.

その目を無視したまま彼女は自分のティー値をテーブルの上に載せて出入り口に向かった。

레스토랑을 나서 채 그녀는 가게 옆에 세워 둔 자전거에 올라타고 페달을 밟기 시작해 다.

レストランを出た彼女は、店の隣に立てた自転車に乗ってペダルを踏み始めた。

레스토랑을 나선 그녀는 가게 옆에 세워 둔 자전거에 올라타고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レストランを出た彼女は、店の隣に立てた自転車に乗ってペダルを踏み始めた。

우물쭈물하다가 도가시가 뒤따라오기라도 하면 귀찮아지 다고 생각해 다.

우물쭈물하다가 도가시가 뒤따라오기라도 하면 귀찮아진다고 생각했다.

우물쭈물하다가 도가시가 뒤따라오기라도 하면 귀찮아진다고 생각했다.

井戸ぐるぐると戸岳が付いてくるといえば面倒になると思った。

기요스바시로를 직진해 다리를 건너 후 좌회전해 다.

氣よスバシ로를 直進해 다리를 건너 後 左回轉했다.

기요스바시로를 직진해 다리를 건너 후 좌회전했다.

清橋を直進して橋を渡った後、左折した。

하 말은 해 다지만, 그거 로 도가시가 포기하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다.

할 말은 했지만, 그걸로 도가시가 拋棄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할 말은 했지만, 그걸로 도가시가 포기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言うことはしたが、それで道が市があきらめるとは思わなかった。

얼마 안 가서 다시 가게에 나타나 야스코에게 들러볼다가 마침내는 가게에 폐를 끼치는 사태를 초래 하고 마 는 것이다.

얼마 안 가서 다시 가게에 나타나 야스코에게 들러볼다가 마침내는 가게에 폐를 끼치는 事態를 招來 하고 말 것이다.

얼마 안 가서 다시 가게에 나타나 야스코에게 들러볼다가 마침내는 가게에 폐를 끼치는 사태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しばらく行って再び店に現れ、ヤスコに立ち寄り、ついに店に迷惑をかける事態を招いてしまうだろう。

미사토가 다니는 학교에도 나타나 지 모르 다.

미사토가 다니는 學校에도 나타날지 모른다.

미사토가 다니는 학교에도 나타날지 모른다.

ミサトが通う学校にも現れるかもしれない。

그 남자는 야스코가 행복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男子는 야스코가 降伏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남자는 야스코가 행복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その男は、ヤスコが降伏するのを待っている。

결국은 두 손 들고 돈을 내놓으리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다.

結局은 두 손 들 高 돈을 내놓으리라는 確信이 있는 것이다.

결국은 두 손 들고 돈을 내놓으리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다.

結局は両手持ってお金を出すという確信があるのだ。

야스코는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시작해ㅅ다。

야스코는 집으로 돌아와 저녁 準備를 始作했다。

야스코는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ヤスコは家に帰って夕方の準備を始めた。

준비라고 해야 가게에서 남은 반찬 가져오 ㄴ 것을 데우는 정도다。

準備라고 해야 가게에서 남은 飯饌 가져온 것을 데우는 程度だ。

준비라고 해야 가게에서 남은 반찬 가져온 것을 데우는 정도다。

準備と言わなければ、店で残ったおかず持ってきたものを温めるほどだ。

그런데도 야스코의 손은 자주 움직임을 멈춰ㅅ다。

그런데都 야스코의 손은 자주 움직임을 멈췄다。

그런데도 야스코의 손은 자주 움직임을 멈췄다。

それでも、ヤスコの手は頻繁に動きを止めた。

불길하 ㄴ 상상이 부풀어 올라 문득문득 얼이 빠져 버리기 때문이어 ㅅ다。

不吉한 想像이 부풀어 올라 문득문득 얼이 빠져 버리기 때문이었다。

불길한 상상이 부풀어 올라 문득문득 얼이 빠져 버리기 때문이었다。

不吉な想像が膨らみ、ふとふと凍りついてしまうからだった。

어느덧 미사토가 돌아오 ㄹ 시간이 어 ㅅ다。

어느덧 미사토가 돌아올 時間이었다。

어느덧 미사토가 돌아올 시간이었다。

いつしかミサトが帰ってくる時間だった。

배드민턴부에 들어 가 ㄴ 미사토는 연습이 끝나면 부원들과 잡담을 나누며 놀다가 들어오 ㄴ다。

배드민턴部에 들어 간 미사토는 練習이 끝나면 部員들과 雑談을 나누며 놀다가 들어온다。

배드민턴부에 들어 간 미사토는 연습이 끝나면 부원들과 잡담을 나누며 놀다가 들어온다。

バドミントン部に入ったミサトは練習が終われば部員たちと雑談を交わして遊んで入ってくる。

그래서 귀가 시간이 대체로 7 시 이후여 ㅅ다。

그래서 귀가 時間이 大體로 7 時 以後였다。

그래서 귀가 시간이 대체로 7 시 이후였다。

それで帰宅時間が概ね 7 時以降だった。

그때 현관 벨이 울려 ㅅ다。

그때 玄關 벨이 울렸다。

그때 현관 벨이 울렸다。

その時玄關ベルが鳴った。

야스코는 의아해하며 현관으로 나가 ㅅ다。

야스코는 疑訝해하며 玄關으로 나갔다。

야스코는 의아해하며 현관으로 나갔다。

靖子は不思議で玄關に出た。

미사토라면 열쇠를 가지고 있으 ㄹ 터여 ㅅ다。

미사토라면 열쇠를 가지고 있을 터였다。

미사토라면 열쇠를 가지고 있을 터였다。

ミサトなら鍵を持っているはずだった。

“네。

“네。

“네。

「はい。

일단 그렇게 대답하<sub>ㄴ</sub> 후 현관문에 다가가서 다시 물어<sub>ㅅ</sub>다。

一旦 그렇게 對答한 後 玄關門에 다가가서 다시 물었다。

일단 그렇게 대답한 후 현관문에 다가가서 다시 물었다。

一度そのように答えた後、玄關門に近づいてまた尋ねた。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誰ですか？」

약간의 틈이 있으<sub>ㄴ</sub> 후 대답이 들려<sub>ㅅ</sub>다。

若干の틈이 いた 後 對答이 들렸다。

약간의 틈이 있은 후 대답이 들렸다。

少し隙があつた後、答えが聞こえた。

“나야。

“나야。

“나야。

「私よ。

야스코는 눈앞이 캄캄해<sub>ㅅ</sub>다。

야스코는 눈앞이 캄캄했다。

야스코는 눈앞이 캄캄했다。

ヤスコは目の前がすっかりした。

불길하<sub>ㄴ</sub>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sub>ㄴ</sub>다。

不吉한 豫感은 빗나가는 法이 없다。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다。

不吉な予感は外れる方法がない。

도가시는 이미 이 연립 주택의 위치도 알아내<sub>ㄴ</sub> 것이다。

도가시는 이미 이 聯立住宅의 位置도 알아낸 것이다。

도가시는 이미 이 연립 주택의 위치도 알아낸 것이다。

同市はすでにこの連立住宅の位置も把握したのだ。

보나 마나 ‘베<sub>ㄴ</sub> 테<sub>ㄴ</sub> 테이’에서 집까지 그녀의 뒤를 밟으<sub>ㄴ</sub> 적이 있으<sub>ㄴ</sub> 것이다。

보나 마나 ‘벤텐테이’에서 집까지 그녀의 뒤를 밟은 적이 있을 것이다。

보나 마나 ‘벤텐테이’에서 집까지 그녀의 뒤를 밟은 적이 있을 것이다。

ボナマナ「ベンテンテー」から家まで彼女の後ろを踏んだことがあるだろう。

야스코가 대답하지 않자 도가시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해<sub>ㅅ</sub>다。

야스코가 對答하지 않자 도가시는 門을 두드리기 始作했다。

야스코가 대답하지 않자 도가시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ヤスコが答えないと、道鹿市はドアを叩き始めた。

“이봐!”

“이봐!”

“이봐!”

「ねえ！」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자물쇠를 풀어<sub>ㅅ</sub>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자물쇠를 풀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자물쇠를 풀었다。

彼女は頭をすっかり振り、ロックを緩めた。

그러나 **도어체인**은 **벗**기지 **않**은 **상**태여 **ㄴ**다。

그러나 刀魚體認은 벗기지 않은 狀態였다。

그러나 도어체인은 벗기지 않은 상태였다。

しかしドアチェーンは剥がさない状態だった。

문을 10 **센티미터** **남**짓 **열**자 **도**가**시**가 **얼**굴을 **들**이**밀**어 **ㄴ**다。

門을 10 센티미터 남짓 열자 도가시가 얼굴을 들이밀었다。

문을 10 센티미터 남짓 열자 도가시가 얼굴을 들이밀었다。

扉を 10 センチメートル余り開けると、道鹿市が顔を押し込んだ。

**야스**코를 **보** **ㄴ** **그**가 **히**죽 **웃**으며 **누**려 **ㄴ** **이**를 **드**려**내** **ㄴ**다。

야스코를 본 그가 히죽 웃으며 누런 이를 드러냈다。

야스코를 본 그가 히죽 웃으며 누런 이를 드러냈다。

ヤスコを見た彼がヒジク笑ってヌンヌンこれを明らかにした。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戻って。

**왜** **여**기**까**지 **찾**아**오**고 **그**래!”

왜 여기까지 찾아오고 그래!”

왜 여기까지 찾아오고 그래!”

なぜここまでやって来てそう！」

“**내** **애**기는 **아**직 **끝**나지 **않**아 **ㄴ**어。

“내 애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애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私の話はまだ終わっていない。

**당**신은 **여**전**히** **성**미가 **급**하**군**。

當身은 如前히 性味が 急하군。

당신은 여전히 성미가 급하군。

あなたはまだ気が急いでいます。

“**이**제 **그**만 **쫓**아**다**녀 **ㄴ**으면  **좋**겠어。

“이제 그만 쫓아다녔으면 좋겠어。

“이제 그만 쫓아다녔으면 좋겠어。

「もうやめて追いかけてほしい。

“**애**기 **정**도는 **들**어 **주** **ㄴ** **수** **있**잖아。

“애기 程度는 들어 줄 수 있잖아。

“애기 정도는 들어 줄 수 있잖아。

「話くらいは聞いてくれるじゃない。

**일**단 **안**으로 **쫓** **들**어**가**야겠어。

一扨 안으로 쫓 들어가야겠어。

일단 안으로 쫓 들어가야겠어。

いったん中に少し入らなければならない。

“**안** 돼。

“안 돼。

“안 돼。

「いいえ。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帰ります！」

“안 들여놓겠다면 여기서 기다리지, 뭐。

“안 들여놓겠다면 여기서 기다리지, 뭐。

“안 들여놓겠다면 여기서 기다리지, 뭐。

「入れないならここで待つな、な。

슬슬 미사토가 돌아오 ㄹ 시간인 ㄹ 테 ㄴ 데 말이야。

슬슬 미사토가 돌아올 時間일 텐데 말이야。

슬슬 미사토가 돌아올 시간일 텐데 말이야。

そろそろミサトが帰ってくる時間なのね。

당신이 내 얘기를 안 들어 주니 그 녀석이랑 해야겠어。

當身이 내 얘기를 안 들어 주니 그 녀석이랑 해야겠어。

당신이 내 얘기를 안 들어 주니 그 녀석이랑 해야겠어。

あなたが私の話を聞いてくれないので、あいつ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그 아이는 내버려 뒀!”

“그 아이는 내버려 뒀!”

“그 아이는 내버려 뒀!”

「あの子は放っておく！」

“그럼 들여놓든가。

“그럼 들여놓든가。

“그럼 들여놓든가。

「じゃあ覗いてみようか。

“경찰을 부르겠어。

“警察을 부르겠어。

“경찰을 부르겠어。

「警察を呼ぶよ。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勝手にやって。

헤어지 ㄴ 아내를 만나러 오 ㄴ 게 뭐가 나쁘다고。

헤어진 아내를 만나러 온 게 뭐가 나쁘다고。

헤어진 아내를 만나러 온 게 뭐가 나쁘다고。

別れた妻に会いに来たのが何が悪いと。

경찰도 내 편을 들어 주 ㄹ 걸。

警察도 내 便을 들어 줄걸。

경찰도 내 편을 들어 줄걸。

警察も私の側を聞いてあげる。

이봐요 부인, 집에 들여놓는 정도는 괜찮지 않으 ㄹ까요? 하고 말이야。

이봐요 夫人, 집에 들여놓는 程度는 괜찮지 않을까요? 하고 말이야。

이봐요 부인, 집에 들여놓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하고 말이야。

ねえ、奥さん、家に入れる程度は大丈夫でしょうか？やってね。

야스코는 입술을 깨물어 ㅅ다。

야스코는 입술을 깨물었다。

야스코는 입술을 깨물었다。

ヤスコは唇を噛んだ。

애석하게도 도가시의 말이 맞아ㄴ다。

哀惜하게도 도가시의 말이 맞았다。

애석하게도 도가시의 말이 맞았다。

哀愁的にも嵐市の言葉が当たった。

전에도 경찰을 부르ㄴ 적이 있어ㄴ지만, 그들이 야스코를 도와주ㄴ 적으ㄴ 한 번도 없어ㄴ다。

前에도 警察을 부른 적이 있었지만, 그들이 야스코를 도와준 적은 한 番도 없었다。

전에도 경찰을 부른 적이 있었지만, 그들이 야스코를 도와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以前も警察を呼んだことがあったが、彼らがヤスコを助けたことは一度もなかった。

한편으로 이곳에서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ㄴ다는 마음도 있어ㄴ다。

한便으로 이곳에서 騒動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마음도 있었다。

한편으로 이곳에서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마음도 있었다。

一方でここで騒動を起こ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心もあった。

보증인 없이 세를 드ㄴ 만큼 조금이라도 이상하ㄴ 소문이 퍼지면 쫓겨나고 마ㄴ다。

保證人 없이 税를 든 만큼 조금이라도 異常한 所聞이 퍼지면 쫓겨나고 만다。

보증인 없이 세를 든 만큼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문이 퍼지면 쫓겨나고 만다。

保証人なしで歳をとっただけに少しでも変な噂が広がれば追い出されてしまう。

“그럼 금방 돌아가야 해。

“그럼 今方 돌아가야 해。

“그럼 금방 돌아가야 해。

「じゃあすぐに帰らなければならない。

“알아ㄴ여, 알아ㄴ다니까。

“알았어, 알았다니까。

“알았어, 알았다니까。

「わかった、わかったから。

도가시가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치켜들어ㄴ다。

道家市街 意氣揚揚하게 고개를 치켜들었다。

도가시가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치켜들었다。

道鹿市が意氣揚々と首を振り上げた。

도어체인을 벗기고 문을 열어ㄴ다。

刀魚體認을 벗기고 門을 열었다。

도어체인을 벗기고 문을 열었다。

ドアチェーンをはずしてドアを開けた。

도가시는 힐끔힐끔 집 안을 살펴보면서 구두를 벗어ㄴ다。

도가시는 힐끔힐끔 집 안을 살펴보면서 구두를 벗었다。

도가시는 힐끔힐끔 집 안을 살펴보면서 구두를 벗었다。

道鹿市はすごく家の中を見ながら靴を脱いだ。

방이 두 개뿐이ㄴ 집이다。

房이 두 個뿐인 집이다。

방이 두 개뿐인 집이다。

部屋が二つだけの家だ。

들어서면 바로 3 평짜리 다다미방이고, 그 오른쪽에 자그마ㄴ 싱크대가 달려 있다。

들어서면 바로 3 坪짜리 다다미房이고, 그 右便에 자그만 싱크臺가 달려 있다。

들어서면 바로 3 坪짜리 다다미방이고, 그 오른쪽에 자그만 싱크대가 달려 있다。

入るとすぐに3坪の畳敷きで、その右側に小さな流し台がかかっている。

더 안쪽에는 2 평짜리 다다미방이 있고 그 앞은 베란다다。

더 안쪽에는 2坪짜리 다다미房이 있고 그 앞은 베란다다。  
더 안쪽에는 2坪짜리 다다미방이 있고 그 앞은 베란다다。  
さらに奥には2坪の畳があり、その前はベランダだ。

“납고 좁기 ㄴ 하지만 그런대로 살 만하네。

“납고 좁긴 하지만 그런대로 살 만하네。

“납고 좁긴 하지만 그런대로 살 만하네。

「古くて狭いけど、そんな風に生きる。

도가시는 뽀뽀스럽게도 방 하 ㄴ 가운데에 놓이 ㄴ 고타쓰 안에 발을 집어넣고 앉 ㄴ 다。

도가시는 뽀뽀스럽게도 房 한가운데에 놓인 고타쓰 안에 발을 집어넣고 앉았다。

도가시는 뽀뽀스럽게도 방 한가운데에 놓인 고타쓰 안에 발을 집어넣고 앉았다。

道鹿市は恥ずかしくも部屋の真ん中に置かれた小田津の中に足を入れて座った。

“뭐야, 안 켜져 있잖아!”

“뭐야, 안 켜져 있잖아!”

“뭐야, 안 켜져 있잖아!”

「なんだ、点灯してないじゃん！」

그는 제멋대로 고타쓰의 전원 스위치를 켜 ㄴ 다。

그는 제멋대로 고타쓰의 전원 스위치를 켜다。

그는 제멋대로 고타쓰의 전원 스위치를 켜다。

彼は勝手にコタツの電源スイッチを入れた。

“당신 속셈이 뭐 ㄴ 지 알아。

“當身 속셈이 뭔지 알아。

“당신 속셈이 뭔지 알아。

「あなたの侮辱が何であるかを知っています。

야스코는 서 ㄴ 채로 도가시를 내려다보 ㄴ 다。

야스코는 선 채로 도가시를 내려다보았다。

야스코는 선 채로 도가시를 내려다보았다。

ヤスコは線のまま道街を見下ろした。

“어찌고저찌고해도 결국 돈이겠지。

“어찌고저찌고해도結局 돈이겠지。

“어찌고저찌고해도結局 돈이겠지。

「とにかくと言っても結局お金だろう。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いや、何を言うの？」

도가시는 점퍼 주머니에서 세븐스타 담뱃갑을 꺼내 ㄴ 다。

도가시는 점퍼 주머니에서 세븐스타 담뱃갑을 꺼냈다。

도가시는 점퍼 주머니에서 세븐스타 담뱃갑을 꺼냈다。

トガシはジャンパーポケットからセブンスタータバコを取り出した。

그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 ㄴ 다음 주위를 둘러보더니 재떨이가 없다는 것을 알자 손을 뻗어

재활용품 배출 봉지에 드 ㄴ 캔을 하나 꺼내 거기에 재를 떨어 ㄴ 다。

그리고 一回用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周圍를 둘러보더니 재떨이가 없다는 것을 알자 손을 뻗어 再  
活用品 排出 封紙에 든 캔을 하나 꺼내 거기에 재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주위를 둘러보더니 재떨이가 없다는 것을 알자 손을 뻗어  
재활용품 배출 봉지에 든 캔을 하나 꺼내 거기에 재를 떨어뜨렸다。

そして使い捨てライターで火をつけた後、周囲を見回すと灰皿がないことが分かったと、手を伸ばしてリサイクル品排出袋に入った缶を一つ取り出してそこに灰を震わせた。

“내게서 돈을 뜯어내려는 거 아니야。”

“내게서 돈을 뜯어내려는 거 아니야。”

“내게서 돈을 뜯어내려는 거 아니야。”

「私からお金を引き出すつもりはない。

요는 그런 거잖아。

요는 그런 거잖아。

요는 그런 거잖아。

コーはそんなことじゃない。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그러든지。

“當身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그러든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그러든지。

「あなたがそう思うならばそう。

“돈은 한 푼도 못 내놔。

“돈은 한 푼도 못 내놔。

“돈은 한 푼도 못 내놔。

「お金は一杯も出せない。

“흥, 그러셔?”

“흥, 그러셔?”

“흥, 그러셔?”

「ふん、そうですか？」

“그래。

“그래。

“그래。

「ええ。

그러니까 돌아가。

그러니까 돌아가。

그러니까 돌아가。

だから帰り。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そしてまた来ないでください！」

야스코가 거친 말투로 내뱉는데 현관문이 활짝 열리더니 교복 차림의 미사토가 들어섰다。

야스코가 거친 말투로 내뱉는데 玄関門이 활짝 열리더니 校服 차림의 미사토가 들어섰다。

야스코가 거친 말투로 내뱉는데 現觀門이 활짝 열리더니 敎복 차림의 미사토가 들어섰다。

ヤスコが荒々しい口調で吐き出すのに、玄関門が広く開かれたので、制服姿のミサトが入った。

손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단 그 자리에 멈춰 서 ㄴ 미사토는 손님의 정체를 알아차리자 두려움과 실

망이 뒤섞이 ㄴ 복잡하 ㄴ 표정을 지어 ㄴ다。

손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一旦 그 자리에 멈춰 선 미사토는 손님의 正體를 알아차리자 두려움과 失望이 뒤섞인 複雜한 表情을 지었다。

손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단 그 자리에 멈춰 선 미사토는 손님의 정체를 알아차리자 두려움과 실망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客がいることを知って一応その場に止まったミサトは、客の正体を気づくと恐怖と失望が混じった複雑な表情をした。

그와 동시에 손에 쥐고 있던 배드민턴 라켓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와 同時に 손에 쥐고 있던 배드민턴 라켓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와 동시에 손에 쥐고 있던 배드민턴 라켓이 바닥에 떨어졌다。

それと同時に手に握っていたバドミントンラケットが床に落ちた。

“미사토, 오랜만이구나。

“미사토, 오랜만이구나。

“미사토, 오랜만이구나。

「ミサト、久しぶりだね。

많이 커네。

많이 컸네。

많이 컸네。

たくさん大きかった。

도가시가 능청스러운 소리로 말을 건네었다。

도가市街 능청스러운 소리로 말을 건넸다。

도가시가 능청스러운 소리로 말을 건넸다。

道鹿市が凄まじい声で話しかけた。

미사토는 야스코를 흘끗 한 번 보고는 운동화를 벗더니 말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미사토는 야스코를 흘끗 한 번 보고는 運動靴를 벗더니 말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미사토는 야스코를 흘끗 한 번 보고는 운동화를 벗더니 말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ミサトはヤスコをすっきり一度見てはスニーカーを脱いで、言葉なしで中に入った。

그리고 그대로 안쪽 방으로 가서 칸막이 문을 닫아 버렸다。

그리고 그대로 안쪽 房으로 가서 칸막이 門을 닫아 버렸다。

그리고 그대로 안쪽 방으로 가서 칸막이 문을 닫아 버렸다。

そしてそのまま奥の部屋に行って仕切りの扉を閉めてしまった。

도가시가 느릿느릿 입을 열었다。

都家時が 느릿느릿 입을 열었다。

도가시가 느릿느릿 입을 열었다。

道鹿市がゆっくりと口を開けた。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sub>ㄴ</sub>지 모르겠지만, 나<sub>ㄴ</sub> 그저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sub>으</sub>ㄴ 뿐이야。

“當身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그저 우리 關係를 回復하고 싶을 뿐이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그저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뿐이야。

「あなたは どう思うか分からないが、私はただ私たちの關係を回復したいだけだ。

그 말을 하러 오<sub>ㄴ</sub> 게 그렇게 나쁘<sub>ㄴ</sub> 가?”

그 말을 하러 온 게 그렇게 나쁜가?”

그 말을 하러 온 게 그렇게 나쁜가?”

その言葉に來たのはそんなに悪いのか？」

“나<sub>ㄴ</sub> 그러<sub>ㄴ</sub> 생각 없<sub>ㄴ</sub>다고 해<sub>ㄴ</sub>잖아。

“난 그럴 생각 없다고 했잖아。

“난 그럴 생각 없다고 했잖아。

「私はそう思わないと言ったでしょ。

당신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sub>으</sub>ㄴ 거<sub>ㄴ</sub> 뻔히 아<sub>ㄴ</sub> 테고。

當身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걸 뻔히 알 테고。

당신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걸 뻔히 알 테고。

あなたも私が受け入れないことを知っている。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거<sub>ㄴ</sub> 나<sub>ㄴ</sub>게 달라붙으려는 구실에 불과하<sub>ㄴ</sub>ㄴ 뿐이야!”

關係를 回復하겠다는 건 내게 달라붙으려는 구실에 不過할 뿐이야!”  
關係를 回復하겠다는 건 내게 달라붙으려는 구실에 불과할 뿐이야!”  
關係を回復するというのは私にしがみつきたい口実に過ぎないだけだ！

정곡을 찌르는 말이었<sup>ㄴ</sup>다。

正鵠을 찌르는 말이었다。

정곡을 찌르는 말이었다。

正曲を突く言葉だった。

그러나 도가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sup>으</sup>니 채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켜<sup>ㄴ</sup>다。

그러나 도가시는 아무런 反應을 하지 않은 채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켜다。

그러나 도가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채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켜다。

しかし、ドガシは何の反応もせずにリモコンでテレビをつけた。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흐르고 있<sup>어</sup>ㄴ다。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흐르고 있었다。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흐르고 있었다。

アニメ番組が流れていた。

야스코는 한숨을 한 번 길게 내쉬고 부엌으로 가<sup>ㄴ</sup>다。

야스코는 한숨을 한 번 길게 내쉬고 부엌으로 갔다。

야스코는 한숨을 한 번 길게 내쉬고 부엌으로 갔다。

ヤスコはため息を一回長くし、台所に行った。

그리고 싱크대 서랍을 열어 지갑을 꺼내<sup>ㄴ</sup> 다음 만 엔짜리 지폐를 두 장 빼 들<sup>어</sup>ㄴ다。

그리고 싱크臺 서랍을 열어 紙匣을 꺼낸 다음 萬 엔짜리 紙幣를 두 장 빼 들었다。

그리고 싱크대 서랍을 열어 지갑을 꺼낸 다음 만 엔짜리 지폐를 두 장 빼 들었다。

そして流し台引き出しを開けて財布を取り出した後だけ円札を2枚取り出した。

“자。

“자。

“자。

「さあ。

그녀는 돈을 고타쓰 위에 올려놓<sup>아</sup>ㄴ다。

그녀는 돈을 고타쓰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돈을 고타쓰 위에 올려놓았다。

彼女はお金をコタツの上に置いた。

“뭐야, 이거<sup>ㄴ</sup>。

“뭐야, 이건。

“뭐야, 이건。

「なんだ、これは。

돈은 한 푼도 못 주<sup>ㄴ</sup>다면서?”

돈은 한 푼도 못 준다면서?”

돈은 한 푼도 못 준다면서?”

お金は一銭も与えられないと？」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これが最後だ。

“필요 없어, 이딴 거。

“必要 없어, 이딴 거。

“필요 없어, 이딴 거。”

「必要ないよ、なんだか。」

“빈손으로 돌아가 ≡ 생각은 없으 ≡ 테 ㄴ 데。”

“빈손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을 텐데。”

“빈손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을 텐데。”

「手ぶらで帰るつもりはないはずなのに。」

더 뜯어 가고 싶겠지만, 나도 사는 게 힘들어。

더 뜯어 가고 싶겠지만, 나도 사는 게 힘들어。

더 뜯어 가고 싶겠지만, 나도 사는 게 힘들어。

もっと開いていきたいけど、私も買うのが大変だ。

도가시는 2 만 엔과 야스코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아 ㄴ 다。

도가시는 2 萬 엔과 야스코의 얼굴을 番갈아 바라보았다。

도가시는 2 만 엔과 야스코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道鹿市は 2 万円と靖子の顔を交互に眺めた。

“하 ≡ 수 없군, 그럼 돌아가야지。”

“할 수 없군, 그럼 돌아가야지。”

“할 수 없군, 그럼 돌아가야지。”

「できないね、じゃあ帰らね。」

말해 두겠는데, 나 ㄴ 분명히 돈 같으 ㄴ 거 ㄴ 필요 없다고 해 ㄴ 어。

말해 두겠는데, 난 分明히 돈 같은 건 必要 없다고 했어。

말해 두겠는데, 난 분명히 돈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했어。

言っておきますが、私は明らかにお金のようなものは必要ないと言いました。

이거 ㄴ 어디까지나 당신이 억지로 집어 주 ㄴ 거란 말이지。

이건 어디까지나 當身이 억지로 집어 준 거란 말이지。

이건 어디까지나 당신이 억지로 집어 준 거란 말이지。

これはあくまでもあなたが無理やり拾ってくれたということだ。

도가시는 지폐를 점퍼 주머니에 찢러 넣어 ㄴ 다。

도가시는 紙幣를 점퍼 주머니에 찢러 넣었다。

도가시는 지폐를 점퍼 주머니에 찢러 넣었다。

道鹿市は紙幣をジャンパーポケットに差し込んだ。

그리고 담배꽁초를 빈 캔 안에 집어넣으 ㄴ 후 고타쓰를 빠져나와 ㄴ 다。

그리고 담배꽁초를 빈 캔 안에 집어넣은 後 고타쓰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담배꽁초를 빈 캔 안에 집어넣은 후 고타쓰를 빠져나왔다。

そして、タバコの吸い殻を空の缶の中に入れた後、こたつを抜け出した。

그러나 곧바로 현관으로 향하지 않고 안쪽 방으로 다가가더니 칸막이 문을 힘껏 열어젖혀 ㄴ 다。

그러나 곧바로 玄關으로 向하지 않고 안쪽 房으로 다가가더니 칸막이 門을 힘껏 열어젖혔다。

그러나 곧바로 현관으로 향하지 않고 안쪽 방으로 다가가더니 칸막이 문을 힘껏 열어젖혔다。

しかしすぐに玄関に向かうことなく奥の部屋に近づいたところ、仕切りの扉を開放して濡れた。

미사토가 놀라 소리를 질러 ㄴ 다。

미사토가 놀라 소리를 질렀다。

미사토가 놀라 소리를 질렀다。

ミサトが驚き声を上げた。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當身 只今 뭐 하는 거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あなたは今何してるの？」

야스코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허공을 갈랐다。

야스코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虛空을 갈랐다。

야스코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허공을 갈랐다。

ヤスコの声が鋭く 虛空を割った。

“아무리 의붓딸이지만 인사는 해야지。

“아무리 의붓딸이지만 人士는 해야지。

“아무리 의붓딸이지만 인사는 해야지。

「いくら義兄だけど挨拶はしなければならない。

“지금은 딸도 그 무엇도 아니잖아。

“只今は 딸도 그 무엇도 아니잖아。

“지금은 딸도 그 무엇도 아니잖아。

「今は娘も何もないじゃない。